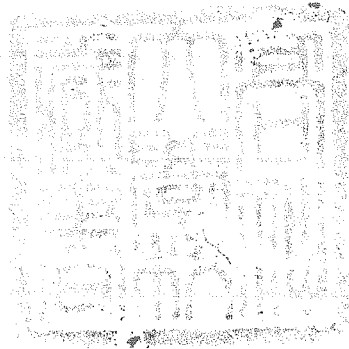


CI
248
26157

갈뱅의 영성을 통해 본
한국장로교회의 영성 이해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정

홍 경 호



갈뱅의 영성을 통해 본
한국장로교회의 영성 이해

指導 이수영教授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7년 12월 4일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정

홍 경 호

홍경호의 碩士學位論文을 認準함

主審 _____

副審 _____

副審 _____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1997년 12월

謝 辭

본 論文을 작성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게 지도하여 주신 이수영교수님께 심심
한 사의를 표합니다.

1997년 12월 4일

홍경호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범위 2

II. 본 론 6

1. 갈뱅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영성 6

(1)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로서의 성경 8

(2)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과 훈련으로서의 기도 15

(3)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찬양 19

(4)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한 믿음 23

(5) 그리스도인의 삶인 자기 부정 28

2. 한국 장로교회의 초기의 영성 33

(1) 초기 선교사들의 신앙유형과 선교방법 37

(2) 초기 한국 장로교회의 성경에 대한 인식 42

(3) 초기 한국 장로교회의 기도의 양태 45

(4) 초기 한국 장로교회의 찬송의 양태 47

(5) 초기 한국 장로교회의 믿음의 양태 50

(6) 초기 한국 장로교회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태	53
3. 현재 한국 장로교회의 영성	56
(1) 현재 한국 장로교회의 성경에 대한 인식	58
(2) 현재 한국 장로교회의 기도의 양태	61
(3) 현재 한국 장로교회의 찬양의 양태	64
(4) 현재 한국 장로교회의 믿음의 양태	67
(5) 현재 한국 장로교회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태	70
4. 갈뎡의 영성과 한국 장로교회의 영성 비교	74
(1) 갈뎡의 성서관과 한국 장로교회의 성서관 비교	74
(2) 갈뎡의 기도관과 한국 장로교회 기도의 양태 비교	79
(3) 갈뎡이 말하는 찬양과 한국 장로교회 찬양의 양태 비교	81
(4) 갈뎡이 말하는 믿음과 한국 장로교회 믿음의 양태 비교	82
(5) 갈뎡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한국 장로교회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교	84

Ⅲ. 결 론	87
-----------------	----

참 고 문 헌	91
---------------	----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본 논문은 개혁신교회의 전통을 수립한 갈뱅의 영성을 살펴보고, 한국 장로교회의 영성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한국 장로교회가 처음 개혁신교회에서 시작된 영성의 흐름을 제대로 이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계승할 것과 비판 수정해야 할 것을 찾아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갈뱅 본인이 영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필자는 그가 요즈음 흔히 말하는 영성이라고 칭하는 개념을 그의 신학 안에 모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갈뱅의 신학은 16세기 이래로 서양의 기독교 정신에 중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그의 신학정신은 개혁주의 신학 전통의 토대를 이루어 왔으며, 개혁신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신앙과 개인적인 신앙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므로 서양의 교회로부터 복음을 이어받아 신앙을 발전, 계승하고 있는 한국 장로교회의 신앙도 갈뱅에게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과 공간의 차이, 즉 시대적 배경과 문화적 배경, 그리고 전통적인 요소들의 차이로 인하여 한국 장로교회는 갈뱅이 말했던 영성과 신앙으로부터 이탈한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찾아 계승, 비판, 반성함으로써 앞으로 한국 장로교회가 지향해야 할 영성의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본 논문이 어떤 학문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필자의 의도는 그것보다는 갈뱅이 말한 영성을 바로 앎을 통해서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실제적인 도움을 얻고자 함이 그 목적이다.

2. 연구의 범위

영성이라는 말의 정의를 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영성을 논하는 사람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영성의 역사에서도 다양한 정의가 있어 왔고, 현재 한국의 학계에서도 영성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성춘 교수는 여러 학자들의 영성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면서 이를 토대로 「관계-변화-역사 참여」라는 자신의 영성 이해를 제시한다.

“노-만 샤우철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사는 은혜의 삶을 강조하고, 존매쿼리는 영의 특성을 분석하여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과의 관계성에 중점을 두고 기독교 영성을 이해했고, 아이리스 켈리는 기독교 영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삶을 따라 사는 성육한 삶의 구체성으로 강조했고, 토마스 머튼은 관상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합일이 곧 하나님의 구원과 사회개혁의 사명과 행동에 동참하게 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기독교 영성의 의미를 규정하면서 위의 학자들의 주장들을 반영하여 기독교 영성을 다음의 세 가지 요소로 정의할 수 있다. 첫째, 기독교 영성은 본질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이다. 즉 기독교 영성은 인격적인 초월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삶을 강조한다. 둘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삶은 초월의 체험을 가져오며, 새로운 의식, 의식의 확장, 새 삶의 출발 등의 전환을 가져온다. 셋째,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체험을 통하여 변화된 삶을 구체적인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구현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영성은 초월자와의 관계-변화의 체험-역사현장에의 참여라는 3각 도식으로 설명

할 수 있다.”¹⁾

김경재 교수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는 오성춘 교수에 비하여 사회참여라는 면을 대단히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인간의 영성이란 인간이 신체나 정신의 특별한 부위 곧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자기 존재나 재능의 일부분이 아니라, 인간 전체로서의 생명이 하나님, 인간,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획득하게 되는 관계적 실재이다.”²⁾

“기독교의 영성은 소극적인 유약한 인간성을 길러내지 않는다. ...악에게 침묵, 체념, 굴종하는 도피주의자를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갯세마네 동산에서, 헤롯 왕과 빌라도를 향해 진리를 증언함으로써 사랑과 선으로 악을 저항하고 악과 투쟁하신 예수님의 영성을 따르는 것이다. 흔히 종교적 순수성이나 복음적 순수성을 빙자하여 현실적인 역사적, 정치적 사회악의 세력에 침묵하고 언급을 회피하는 것은 용기가 없는 비겁한 악과의 타협이지 기독교의 영성은 아니다. 성서의 예언자들을 보라. 그들의 영성은 유혹과 악에 저항하는 영성이지 순수 종교영역으로 퇴각 칩거하는 종교적 계토의 영성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³⁾

1) 오성춘, 영성과 목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 출판부, 1995), pp. 69-71.

2) 김경재, “신학교육에 있어서 영성교육의 방안-이론신학 분야에서”, 1988년도 연구 프로젝트보고, 「신학교육에 있어서의 영성교육의 방안」, 3. (한국신학교육연구원, 1990). 이수영, “한국교회의 영성이해”, 「신학사상」 77집, 1992년, p. 490에서 재인용.

3) 김경재, “주기도문의 영성과 씨알 사상” 37-38, 「신앙과신학」, 제5집, (한국기독교학회편, 서울: 강남출판사, 1989), p. 16. 이수영, “한국 교회의 영성이해”

이수영 교수는 영성을 첫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지향성으로의 영성. 둘째, 그리스도 안에서 보증된 참된 인간성으로의 영성. 셋째,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 삶의 능력으로의 영성이라고 설명하면서 영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영성은 나만 있고 내가 중심이고 내가 기준이며,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는 단자화되고 기계화되고 물질화되고 짐승화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 중심의 삶, 이웃과의 관계 속에 선 삶의 발견(vision), 즉 진정한 의미의 인간화(또는 인간회복)와 관계된 것이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처럼 육신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 살며, 사라질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으며, 내가 나에게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이 세상의 좋은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위해 배설물로 여겨지는 그런 삶의 이해와 관련된 것이다. 또한 영성은 그런 삶의 이해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삶을 사는 실천에 관계된 것이며 그러한 삶의 이해와 실천 속에서 감격, 감사, 기쁨,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능력과 관계된 것이다.

영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고 확증되었으며, 복음 안에서 열매맺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열려진 참 인간적 삶의 능력’ 이라고 요약될 수 있다”.⁴⁾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영성에 대한 이해에는 비슷한 듯하면서도 다양한

「신학사상」 77집, 1992. p. 489에서 재인용.

4) 이수영, “한국 교회의 영성이해”, 「신학사상」, 7집, 1992, pp. 503-504.

입장들이 많이 있다. 필자는 위에 제시된 영성에 대한 모든 이해를 수렴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모든 기독교 영성이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찬양,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의 자기 부정 등이 어떤 경우라도 제외될 수 없는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되므로, 이 다섯 가지 요소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우러지는 것을 좁은 의미의 영성으로 규정하고, 위에서 제시된 영성이해에 비추어 본다면 매우 빈약하고 협소한 느낌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갈뱅이 필자가 생각한 다섯 가지 요소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한국 장로교회에서 이 다섯가지 요소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써 본 논문의 범위를 삼고자 한다.

단, 한국 장로교회가 위의 다섯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현재 어떤 영성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간략하게나마 현재 한국 장로교회의 뿌리가 되는 한국 장로교회 초기 역사에서 찾을 수 있는 영성의 흐름을 짚어 보고자 한다.

II. 본 론

1. 깔뱅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영성

깔뱅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에 대하여 논하기 이전에 깔뱅의 신학의 특징들을 간단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의 신학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앞으로 서술할 내용들을 위해서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이수영 교수는 깔뱅 신학의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⁵⁾

“첫째, 루터는 그의 신학의 중심을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는 반면에 깔뱅은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다. 즉 깔뱅의 신학은 그 무엇이기에 앞서 ‘신본주의’ 혹은 ‘하나님 중심의 사고 체계’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신중심의 그의 사고는 신의 품성과는 반대되는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을 강조하는 철저한 ‘은총의 신학’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셋째,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내용을 담은 그의 인간관은 그의 신학을 ‘성경적이고 성령론적인 계시의 신학’으로 나아가게 한다.

넷째, 깔뱅이 인간을 완전한 죄인으로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지각(이성)과 마음(의지)의 순전성에

5) 이수영, “깔뱅신학의 특징과 한국신학”, 「개혁사상」, (서울:한국기독교사상연구소, 1989), 창간호, pp. 38-48.

남아 있음을 주장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총체적 인간에게 적용시킨다. 이러한 면을 볼 때, 우리는 그의 신학을 '전인적 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갈뱅의 신학의 특징들로부터 우리는 갈뱅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 갈뱅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을 위한 첫번째 길임을 그는 주장한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과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이라고 그의 주 저서인 기독교 강요의 시작에서 못박고 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만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다고 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자기 자신의 타락한 모습과 죄를 범하는 자기의 습성을 올바르게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자기를 바로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가장 확실하고 적절한 길은 성경이다. 따라서 성경은 세상의 어떤 다른 위대한 책과도 비교될 수 없는 책이라는 것을 그는 강조한다.

말씀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기도이다. 갈뱅을 반대하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갈뱅은 그런 사람들의 견해를 물리치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드려야 함을 주장한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게으르고 타락하기 쉬운 본성을 가진 인간들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말씀과 기도와 함께 갈뱅은 그리스도인들의 찬양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비록 기독교 강요에서 그가 찬양에 대하여 짧은 부분만을 할애하고 있지만, 그는 짧은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

오는 찬양이어야 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보다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어야 함을 그는 말한다.

갈뻡에게 있어서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인데,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근거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

위와 같은 요소들이 그리스도인의 내부에서 잘 조화되어 자리잡을 때에 나타나는 그의 삶은 자기 부정의 삶이라고 갈뻡은 말한다. 자기 부정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 가게 되고, 또한 이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이웃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 즉 자기 부정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는 표지라고 할 수 있다.

(1)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로서의 성경

갈뻡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셨지만, 인간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우둔함으로 인하여 그것으로부터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 오히려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현현은 인간의 미신들과 철학자들의 오류에 의하여 질식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령은 인간이 고안해 낸 일체의 예배 행위를 거절하신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우둔함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변명도 허락될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연에 나타난 자신의 현현으로 끝마치지 않으시고, 인간의 미련함으로 인하여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시고 말씀

이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통하여 인간이 핑계할 수 없도록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셨다고 한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얼마나 심하게 각종 오류에 기울어지고 있으며, 또한 얼마나 맹렬하게 계속 신기하고 인위적인 종교를 날조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 그러면 그 천적(天的)인 교리가 망각으로 파멸되지 아니하고, 오류로 소실되지 아니하며, 인간의 방자한 행동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록된 증거로 남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주의 가장 아름다운 형성(形成)에 찍혀진 자신의 모습이 충분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가 유익한 교훈을 주시기를 기뻐하셨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말씀의 도움을 마련하셨던 것이 명백하다.”⁶⁾

그러므로 칼뱅은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만 참된 그리스도인일 수 있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길 중에 가장 확실한 길이 성경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칼뱅은 다른 어떤 문학적으로 위대한 인간의 작품이라도 성경과 비교될 수는 없음을 말한다.

“인간의 저작이 아무리 기교면에서 잘 다듬어졌다 하더라도 그것

6) Calvin J. 김종흡, 신복운, 이종성, 한철하 공역. 기독교 강요, (서울:생명의 말씀사, 1996), (I.vi.3.) ※이 후에는 기독교 강요의 인용문은 본문에 권, 장, 절을 표시한다.

은 성경만큼 감동을 줄 수 없다는 사실에서 성경의 이 특수한 힘은 명백해진다. 데모스테네스(Demosthenes)나 키케로(Cicero)의 글을 읽어보라. 플라톤(Plato)이나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또는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라. 그것들은 놀라운 방법으로 독자를 매혹시키며 기쁘게 하고 감동을 주며 또 황홀하게 만들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들을 다 읽은 후에는 이 성경을 읽는 데 전념하라. 그리하면 성경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깊이 감동시키며 우리 마음에 스며들 뿐 아니라 끝수에까지 새겨짐으로써, 그 깊은 인상과 비교할 때에 수사학자(修辭學者)나 철학자들의 힘은 거의 사라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노력으로 얻게 되는 일체의 재능과 미덕을 훨씬 능가하는 이 성경은 신적인 무엇을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인식하게 될 것이다.”(I.viii.1)

깔뱅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혼란한 지식을 우리 마음에서 바로잡고 우리의 우둔함을 쫓아버리며, 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 주며,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보다 더 정확하고 보다 더 확실한 표준이 된다고 한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세계의 창조주요 통치자로 파악하는 그런 종류의 지식을 얻게 되고, 다음으로 죽은 영혼을 소생시키는 다른 내적 지식이 여기에 가해졌는데, 이 지식에 의해 하나님을 우주의 창조자요, 지음 받은 만물의 유일한 원작자(原作者), 통치자로 알 뿐 아니라, 중보자의 위격으로 나타나신 구속주로서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깔뱅은 다른 학자들보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확실한 지식이 없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유행이나 귀신일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이나 말씀

없이 자기의 의사에 따라 인도함을 받을 때는 오류를 범할 수 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7)

그는 이러한 참된 지식 즉 종교의 빛을 받기 위하여는, 마땅히 하늘의 교리에서 그 시초를 찾아야 하며, 그리고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아무도 참되고 건전한 교리를 극히 일부분이라도 얻을 수 없다고 한다.

칼뱅은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구속주이시며, 중보자이신 성자 하나님을 알게 한다고 한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날 수 있듯이 또한 성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성경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위격과 사업 곧 그의 십자가, 부활, 승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 그리고 재림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써,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으로 성육하셨다. 이 사람의 아들은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시다.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주로서, 혹은 중보자로서 인간의 구원을 성취하셨다. 바로 이 분이 우리의 말씀이시다. 이 말씀이 없이는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공허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그리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말해야 한다. 이 말씀은 어느 하나도 다른 둘 없이 이해될 수 없는 3중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구약의 주제이다”8)

7) 존.칼빈, 칼빈성서주석 3, 요4:22. (서울: 존.칼빈성경주석출판위원회 역편, 성서교재간행사, 1979) ※이 후에는 ‘칼빈성서주석과 번호, 성경 장, 절만 표기함.

갈뱅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에 우리의 목표는 신앙이어야 하고 주님을 두려워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끌려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하여 성서를 읽어야 한다. 그 목표를 상실할 때, 모든 수고와 노고는 헛것이요, 결코 우리는 진리를 인식할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없이 우리가 어찌 지혜로울 수가 있는가?”⁹⁾

갈뱅이 성경을 말하면서 특히 강조하는 또 하나는 성령의 사역이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말씀이 그리스도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도 스스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성경은 기록될 때에 성령의 조명과 인도를 받았다.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복음의 말씀의 의미에 가 닿은 기독교인들로서 사도들은 말씀을 기록으로 남겼다. 갈뱅은 성서를 ‘마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 온 것처럼 여겨야 한다.’(I.vii.1)고 하며, ‘성

8)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서울: 장로회신학대학 출판부, 1984), pp. 302-304.

9) 같은 책, p. 306에서 재인용.

서의 도그마 역시 하늘에서 온 것으로'(I.vii.4)여겨야 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갈뱅은 루터의 경우처럼 복음 중심적 성서 이해를 하면서도 기록된 말씀을 강조하였다. 갈뱅은 성서의 저자가 하나님 혹은 성령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이 성서를 통하여 친히 말씀하신다고 한다.(I.vii.4) 이 성서의 권위는 인간의 이성이나 교회의 권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왔으며, 성령을 통해서 말해졌던 것이 성령을 통해서 기록되었으므로 그 권위가 인간적인 것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서의 메시지가 파악되려면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¹⁰⁾

이와같이 갈뱅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말한다.

“성령의 증거는 일체의 이론을 훨씬 능가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만이 자기 말씀의 합당한 증인이 되시는 것처럼, 그 말씀도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하여 확증되기 전에는 사람의 마음에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이다”.(I. vii.4)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보고를 우리에게 펼쳐주실 때에만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진심으로 성경을 신뢰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경을 증거나 이성에 종속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성경이 마땅히 지녀야 할 확실성은 성령의 증거에 의해서 얻게 된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 자체의 위엄 때문에 존경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속에서 확증되기 전에는, 진정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10) 같은 책, p. 300.

(I .vii.5)

칼뱅이 성경에 대한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였다고 해서 성경을 기록한 인간의 수고를 무시하지는 않는다. 그는 성경을 성경기자 자신의 언어로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 그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인간적인 특징 즉 거칠고 때로는 단순해 보이는 표현들을 인정하면서, 그런 것이 오히려 미사여구가 총동원된 어떤 위대한 책보다도 훨씬 더 큰 경외감을 불러 일으킨다고 말한다.

“칼뱅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차원과 인간의 기록이라는 두 차원을 조화시키고 있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인간에게 전해준다는 점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매개물 혹은 수단은 인간의 언어이다. 그가 받은 인문주의 교육은 그에게 조화(accommodation)라는 개념을 소개하여 주었다. 그는 이 개념을 가지고 성경의 두 차원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틀”(framework)로써 사용하고 있고, 사실상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만한 틀로써 사용하고 있다.”¹¹⁾

칼뱅은 이렇게 함으로써 때로는 인간의 조잡한 언어로 쓰인 것으로 보이는 성경의 말씀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칼뱅은 신약과 구약에 대하여 말하면서, 구약에서 족장들에게 주어진 약속과 신약에서 주어진 약속이 본질상으로는 동일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11) Donald K. Mckim, “칼빈의 성경관”, 도날드 K. 맥킴 외 공편, 한국칼빈주의연구원 편역, 칼빈에 관한 신학논문, (서울: 기독교문화사, 1986), p. 75.

구약의 조상들은 약속의 실현을 내세에서 구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갈뵁은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도 제시한다. 구약은 영적 축복을 현세적인 것으로 표현하며, 형상과 의식으로 그리스도를 예표했고, 구약은 문자적인데 비해서, 신약은 영적이다. 또한 구약에서는 노예상태를 보여주고, 신약에서는 자유의 상태를 전하며, 구약은 한 민족에 관련된 것이고, 신약은 모든 민족에게 관련된 것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신약과 구약의 동일성과 차이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갈뵁에게 있어서 성경은 그의 신학과 사상의 핵심에 놓여 있다. 이수영 교수는 성경은 갈뵁의 사상의 영혼이요, 그의 신학의 본체인데, 그에게 있어서 성경은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된다고 말하면서, 이에 따르는 갈뵁의 성경관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¹²⁾

“첫째, 성경은 인간들의 부주의와 태만과 허망한 생각으로부터 끼쳐질 피해와 변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해진 하나님 자신의 조치이다.

둘째, 성경은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파악하고 이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처방이다.

셋째, 성경은 단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한 최선의 수단일 뿐 아니라 유일한 원천이다.

넷째, 성경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진리의 원천으로서 유익할 뿐 아니라 완벽한 것이다.”

12) 이수영, “갈뵁신학의 몇가지 기본적 관점”, 「장신논단」 1집,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사, 1985), pp. 84-85.

(2)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과 훈련으로서의 기도

갈뱃은 기도는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며 우리는 이것을 통해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신자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받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갈뱃은 신자들이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참증거를 드러낸다고 한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계으를 수 없고, 계속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위하여 준비해 두신 것을 얻을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욕구를 표출하는 믿음이며(주석, 시91:15), 기도가 없으면 믿음은 참되지 않는다”.¹³⁾

갈뱃은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의 주인이시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것과, 그에게 구하라고 격려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의 앞에서 달라고 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땅 속에 감추인 보화가 어디 묻혀 있다는 것을 알려 주었어도 그 보화를 무시하는 사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등한시할 수 없다(III.xx.1)고 말한다.

니젤도 갈뱃의 기도에 대한 견해를 보는 자신의 이해를 다음과 같은 말로 정리하고 있다.

“하늘의 아버지 곁에 우리를 위해 저장되어 있는 보물에 우리의 손이 닿으려면 기도의 힘을 빌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교통이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약속하셨

13) Philip C. Holtrop, 박희석, 이길상 역, 기독교강요 연구해드북,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5), p. 257.

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었고, 필요한 때에는 그 약속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체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직접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III.xx.2)라는 진술은 우리에게 갈뱅의 기도에 대한 이해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를 제공해준다. 죄가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 분이 먼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¹⁴⁾

갈뱅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므로, 인간이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명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명하시는 것은 그 분 자신 때문이 아니고 우리 때문이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 인정을 기도로 증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당연히 받으실 것으로 여기시는데 이 입장은 정당하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을 항상 찾으며 사랑하며 섬기겠다는 소원과 열의가 우리 마음 속에 불일 듯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하나님께 알려 드리지 못할 부끄러운 욕망이나 소원이 우리 마음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실 때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넷째, 우리가 구하

14) Wilhelm Niesel, The Theology of Calvin, translated by Harold Knight, (William Clowes and Sons, Limited, London and Beccles. 1956), p. 153.

던 것을 얻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으로 그의 인자하심을 더욱 열심히 명상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다섯째, 기도로 얻었다고 인정하는 것들을 더욱 큰 기쁨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여섯째, 우리의 연약한 정도에 따라서 습관과 경험으로 그의 섭리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Ⅲ.xx.3)

갈뻡은 또한 기도의 자세를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즉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데 있어서 지켜야 할 자세를 언급하고 있다.

“합당한 기도를 드리기 위한 첫째 법칙은, 하나님과 대화하려는 사람은 합당한 정신과 마음을 가져야 한다. 즉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하고 무례한 자세를 버리고, 진정한 경건의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또한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성령께서도 도우신다. 둘째 법칙은,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자신의 무력을 느끼며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진심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얻고자 하는 진실한, 아니 강렬한 소원을 기도에 첨가해야 한다. 셋째 법칙은,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은 겸손하게 영광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리며, 자기의 영광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자기의 가치를 일체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즉 자기 신뢰를 전적으로 버려야 한다. 넷째 법칙은, 이렇게 겸손한 마음에 의해서 기도하는 자가 압도되더라도, 동시에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으리라는 확고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도록 용기를 내야 한다. 이런 용기가 있기 때문에 신자들은 무거운 죄의 짐에 아무리 심히 눌리고 고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무서워할 죄과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 또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기도도 들어주시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만 응답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자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불변한 증보자이시라는 것이다”.
(Ⅲ.xx.4-20)

갈뱃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그는 언제나 기도는 간구와 감사가 함께 들어 있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빌 4:6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의 기도엔 간구와 탄원이 들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의로울지라도 죄에서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고, 또한 기도엔 감사가 들어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크고 많으며, 어디를 향하나 강력한 기적이 많이 보여 우리는 거의 압도될 정도이므로, 찬양과 감사를 드릴 기회는 언제나 있다는 것이다.

이수영 교수는 기도는 갈뱃의 경건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에 있어서 경건은 예배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지만, 그 자신이 말하듯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기도로 입증되기”(행10:2주석)때문이라고 한다.¹⁵⁾

(3)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찬양

갈뱃 당시에는 찬양을 예배에 포함시켜야 하는가의 문제가 확실하지 않았다. 상당한 음악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쯔빙글리는 예배에서 찬양을 제

15) 이수영, “갈뱃에 있어서 경건의 개념”, 『교회와신학』 27집,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95), p. 355.

의시켰다. 그러나 칼뱅은 음악이 가지는 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중 예배에서 찬양을 하도록 하였다.

“칼뱅은 음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여겼고, 음악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비밀스럽고,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곡과 가사가 예배에 합당하며, 음악이 말씀을 흐리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회중들이 함께 찬양하는 것을 옹호하였다. 그 결과 칼뱅은 시편을 가사로 만들어서 음악에 맞춘 예배용 시편(Psalter)을 만드는 것을 후원하였다”.¹⁶⁾

칼뱅은 인간들이 그들의 내부에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역과 은총을 지니고 있으며,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함이 흘러 넘치는 창고를 가지고 있으므로, 마땅히 힘껏 그 분을 찬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만으로 그 마음을 가득 채웠다고 말한다. 이와같은 진술에서도, 그는 인간이 당연히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칼뱅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만을 향한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할 것을 강조한다. 그는 시150:1,2절을 다음과 같이 주석하고 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경건한 마음으로써 합당하게 찬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인은 하나님을 하늘의 보좌 위에서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묘사하며, 2절에서는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하심-곧 이런 모습이 명백히 드러나 보이는 거울과 같은 하늘에서 우

16) John H. Leith, An Introduction to the Reformed Tradition, (John Knox Press, 1978), p. 201.

리를 깨우쳐 찬양하도록 권면했던-을 찬양하면서 똑같은 진실을 보다 확대시킨다”17).

그는 노래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입술과 목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고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킨다고 말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이름을 남용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존엄성을 조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는 말과 노래를 배척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진정으로 마음의 감동과 관련된 것이라면 적극 장려한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깨어 있도록 자극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 보조 수단으로 지탱하지 않으면 불안정하며 쉽게 변하며 해이해져서 여러 방면으로 흩어져 버린다는 것을 그는 간파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신체 각부에서 어느 정도로 빛나야 하므로, 노래와 이야기를 통해서 혀가 이 일을 하도록 맡겨진 것은 합당하다고 한다. 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Ⅲ.xx.31)

칼뱅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있어서 가능한 모든 악기들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그의 입장을 시편 주석에서 볼 수 있다.

“시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그들이 지닌 모든 능력을 힘써 바치며 그 마음을 전심으로 드릴 것을 권면하고자 한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이름 아래 이와같이 여러 가지의 악기로 찬양의 노래를 바칠 것을 명하시는 것은 결코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너무도 깊이 빠져

17) 칼빈성경주석 11, 시편. 시150:1,2.

있고 중독되어 있는 헛되고 부패한 쾌락으로부터 벗어나서 기록하고 유익한 기쁨으로 그 마음을 돌리도록 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엄청난 방종에 취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 있어서도 부당하고 어리석은 많은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심히 몰두하면서도 그 가장 즐기는 만족은 하나님에 관한 모든 생각들을 억누르는 가운데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비뚤어진 성향은 오직 하나님께서 약하고 무지한 백성을 속박과 끊임없는 연단 아래 두시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써만 교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시편기자는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일에 있어서 그들의 모든 기쁨을 쏟아내도록 신도들을 권면하는 가운데 당시에 사용되던 모든 악기들을 차례 차례 열거하는 것이며, 모든 것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예배에 거룩하게 바쳐져야 함을 상기시키는 것이다.”¹⁸⁾

갈뻡은 교회 전통 초기부터 찬양이 있었음을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찬양을 하나님을 높이기에 합당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는 신자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높이는 것보다 오히려 곡을 즐기는 쪽에 치우치는 것을 경계한다.

“고전 14:15에서 바울이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 하리라’ 또 골로새 교인들에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골 3:16)라고 한 것을 보면, 공동체 내에서 찬양을 하는 것은 사도 시대에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처음 구절에서 바울은 음성과 심령으로 노래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다음 구절에서는 신자들이 서로 덕을 세울 수 있는 신령한

18) 같은책, 시150:3,4.

노래를 장려한다.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합당하고 엄숙한 태도와 조화를 이룬 노래를 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행동에 확실히 위엄과 운치를 더하며, 우리의 마음 속에 기도하겠다는 진정한 열성을 일으키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우리는 곡조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가사의 영적 의미에는 마음을 덜 기울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어거스틴도 이 위험성을 많이 염려해서 어떤 때는 아타나시우스가 지킨 관례가 확립되기를 원했노라고 한다. 아타나시우스는 음성에 억양을 적게 붙여서, 노래를 한다가 보다는 말하는 것 같이 들리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노래에서 받은 유익이 많은 것을 생각하고 어거스틴은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졌다. 그러므로 이렇게 적당한 정도를 지킨다면 노래를 부르는 것은 확실히 대단히 거룩하고 유익한 일이다. 그러나 감미로운 느낌과 귀의 즐거움만을 목적으로 작곡한 노래는 교회의 존엄성에 합당치 못한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을 지극히 불쾌하게 만들 것이다”.(Ⅲ.xx.32)

갈뱅이 볼 때,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무한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분만을 높이기 위한 찬양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 아니고, 인간들이 즐기기 위한 노래에다가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라는 명목을 붙이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며, 불쾌하게 하는 짓이기 때문이다.

(4)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한 믿음

갈뱅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이해나 마음의 감동없

이 머리 안에서만 맴도는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고 말한다. 믿음은 확고하고 단단한 마음의 확신이며, 우리는 믿음으로 인하여 복음을 통해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에 안주할 수 있다고 한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내적 확신이라는 것이다.¹⁹⁾

갈뻡은 롬 10:10을 주석하면서도 믿음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고, 확고한 확신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구절은 이신칭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구절의 말씀은 복음으로 우리에게 제공된 하나님의 자비를 인식하여 받아들임으로 해서 우리가 의를 얻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믿음의 좌소(座所)가 머리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는 점이다. 나는 여기서 믿음이 위치하고 있는 신체적인 부분에 대하여 논하려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진지하고 신실한 감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믿음이란 단순한 개념이 아니고, 확고한 확신이라는 것을 주장하려는 것 뿐이다.”²⁰⁾

동시에 갈뻡은 이러한 믿음에 있어서 성령의 우선권 있어야 함을 말한다. 즉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다²¹⁾.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믿음인데, 이것은 성령께서 사람들을 인도하실 때에만 가능하다고 한다. 인간의 무능함과 죄악성 때문에 그들에게 제시된 율

19) John Calvin, Instruction in Faith(1537), translated by Paul T. Fuhrmann, (The Westminster Press), p. 38.

20) 칼빈성서주석 7, 롬10:10.

21) 위의 책, p. 39.

법을 지킬 수 없으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은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견고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가능한 것이라고 말한다.

“믿음은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동시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 분발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율법으로 정하셨다. 우리가 그 율법을 일자 일획까지 지킨다는 것은 어려울 뿐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참한 재난에서 우리를 구출할 수 있는 해방의 수단은 다만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구속자 즉 해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선하심과 자비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의 손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기로 하셨다. 다만 한 조건은 우리가 견고한 믿음으로 이 자비를 받아들이며, 꾸준한 희망으로 그 안에 안주하는 것이다.”(III.ii.1)

갈병은 위와 같이 말하면서 히11:1에 대한 주석에서 믿음에는 또한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사도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박국의 증언을 인용하였다. 믿음을 인내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음은 믿음을 믿음 자체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음과 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논지의 순서는 ‘우리가 인내를 갖추고 있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구원의 목표에 도달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선지자는 예언했지만, 믿음은 우리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먼

곳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그러므로 믿음은 그 자체 안에 필연적으로
인내를 포함한다.”²²⁾

갈뻡은 믿음의 근거는 무지가 아니고 지식이라고 말한다. 이 지식은 하나
님뿐 아니라 그의 뜻까지 아는 지식이라고 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이
성립됐기 때문에(고후 5:18-19),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로운 아버지시
며 그리스도를 의와 성결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
는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 이 지식에 의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지 우리의 감정을 위임함으로써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그는 분명히
말하고 있다.

그는 믿음이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또 확실하게 아는 지
식이며, 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약속의 신실성을 근거로
삼은 것이며,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에 계시되며 우리의 마음에 인친
바가 된다고 한다.

갈뻡은 그가 믿음을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지식’이라는 단어는 사람
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식’과는 다른 것임을 밝힌다.

“우리가 믿음을 ‘지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인간의 감
각적인 지각으로 아는 사물들에 관해서 말하는 지식이나 이해와는
다르다. 믿음은 감각을 훨씬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에 도달하
려면 사람의 마음은 그 자체를 초월해야 한다. 마음은 믿음에 도달
한 때라도 그 느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
는 것을 믿을 때에는 그 신념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것
을 자체의 능력으로 지각한 때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한다. 그러므

22) 칼빈성서주석 10, 히11:1.

로 믿음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힘이라고 바울은 아름답게 묘사한다.(엡3:18-19) 그가 말하는 뜻은 우리의 마음이 믿음에 의해서 얻는 것은 어느 면으로 보든지 무한하며, 이런 종류의 지식은 모든 이해력을 훨씬 초월한다는 것이다. 바울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아는 일들은 우리 앞에 있지 않고 눈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믿음의 지식은 이해가 아니고 확신이라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다".(III.ii.14)

갈뱃은 믿음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견디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방위 태세를 강화함으로써, 어떤 시험이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를 돌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라고 우리를 유혹 할 때에,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시지만 그의 징벌은 진노가 아니라 사랑에서 오는 것이므로 그는 또한 자비하시다고 대답한다고 한다. 그는 하나님이 불의를 벌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충격을 받을 때에 믿음은 여기에 대항해서 죄인이 주의 자비를 얻으려고 나아가기만 하면 주께서는 언제나 모든 불의에서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신자의 마음이 아무리 이상하게 번뇌와 고통을 당할지라도 결국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 확신을 결코 빼앗기지 않게 된다고 한다. 신자를 시험하며 괴롭히는 모든 싸움은 도리어 이 확신을 굳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 온다고 한다.

갈뱃은 인간이 죄를 계속 짓는 나약하고 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확신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은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

“믿음의 확실성이 확고 부동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우리 밖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끊을 수 없는 교제의 유대로 우리와 꼭 붙어 계시는 뿐 아니라 놀라운 영적 교통에 의해서 날이 갈수록 더욱 더 우리와 한 몸이 되시며, 드디어 완전한 일체가 되신다. 그러나 나는 믿음이 연약하여 좌우로 맹렬한 공격을 받아 중단되는 일이 있으며, 시험의 질은 암흑 속에서 그 빛이 꺼지는 일이 있다고 한 말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III.ii.24)

이와 같은 깔뱅의 믿음에 대한 주장에 의하여 많은 학자들은 그의 믿음의 지식은 실천적이라고 말한다. 이수영 교수는 그의 믿음의 지식이 실천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²³⁾

“첫째, 참된 믿음의 지식은 목표를 가져야 한다.

둘째, 참된 믿음의 지식은 유익해야 한다.

셋째, 참된 믿음의 지식은 나와 관계된 것이어야 한다.

넷째, 참된 믿음의 지식은 우리를 실천으로 인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섯째, 참된 믿음의 지식은 경험 속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그리스도인의 삶인 자기 부정

23) 이수영, “깔뱅신학의 몇가지 기본적 관점”, 「장신논단」 1집, 1985. pp.91-93.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며,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사는 목적은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 분이 원하시고, 명령하시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거룩함’이라는 정체성을 갖기를 요구하신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 19:2) 갈뻡은 주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실 때의 조건은 하나 뿐이었다고 한다. 즉 우리의 양자 관계의 유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활에서 나타내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험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문제이며, 생활이 비록 불완전할 지라도 성실하게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한다.

갈뻡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의 길은 자기 부정이라고 말한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역설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이나 의지가 우리의 계획과 행동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욕을 따라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말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대로 우리 자신과 우리 전소유를 잊어버리라.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를 위해 살고 그를 위해 죽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지혜와 그의 뜻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주관하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따라서 그를 우리의 유일하고 합당한 목표로 삼고 생활의 모든 부분이 그를 향하여 경주하도록 노력하라”.(III.vii.1)

갈뻡은 자기 부정의 심령이 강하지 않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

이 적어도 칭찬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III.vii.2) 그에게 있어서 자기 부정은 우리의 자연적 욕망의 억제이며, 육신(flesh)으로부터 생겨나는 모든 충동을 부정하는 것이다. 욕망으로 인하여 인간의 마음은 항상 자연적 본성으로 기울어져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요구와 교제를 도외시하게 된다고 하며, 자아(self)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해야만 하는 가장 지속적이고, 가장 좌절스러운 문제를 일으킨다고 한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하에 두려고 하면 할수록, 욕망에 의해서 우리의 내부로부터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내적 반란과 저항이 더욱 많이 일어난다고 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길은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싸움은 단시일에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평생동안 계속되는 것이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길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그는 말한다.

갈뻥은 또한 자기 부정을 이웃과의 관계에서 말한다. 자기 부정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한다고 한다. 결점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마땅히 호의와 존경으로 대할 사람들을 비난하고 공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며, 상대가 누구든간에, 우리는 관대하고 겸손하게 대할 뿐 아니라 다정하게 그리고 한 친구로서 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정한 친절을 체득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 길은 진심으로 자기를 낮추고 남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우리가 가진 은사들은 남을 위해 섬기라고 위탁받은 것이기 때문에(벧전 4:10), 자기 부정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태도로 이웃을 돕는다고 말한다.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데 있어서 사람의 종류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러러 보며 모든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하는 것이 자기 부정의 길이며, 동시에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주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않고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번영하겠다는 욕망이나 희망이나

계획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일반 사람들이 미친 듯이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악한 술책을 쓰는 일이 없을 것이며, 설령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더라도 그는 실망하지 않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최고의 부귀보다 더 위대한 안식과 평화를 주는 위로가 있기 때문이다. 자기 부정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임을 알기 때문에 평온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견디며, 하나님의 명령에 항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칼뱅은 말한다. 이는 자기 부정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권한에 영원히 양도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칼뱅은 신자가 이웃에 대한 사랑의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한다.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않고 말로만 돌려 보내는 것은 그를 모욕하는 것이나 다름없듯이, 우리가 진지한 사랑의 행위를, 그것이 많은 적든, 기피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정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다.”²⁴⁾

칼뱅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자기 부정의 방법의 하나로써 각자의 십자가를 지게 하신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부정의 훈련을 감당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를 짐으로써 자신에 대한 과신 즉 교만을 털어 버리게 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기회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한다. 십자가를 통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에 직면한 사람은 자

24) 칼빈성서주석 4, 약2:15.

신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가 처한 역경은 가혹하게 우리를 괴롭힐 것이고 우리는 병고로 신음하며 불안해 하며 건강을 갈망하게 될 것이다. 가난에 시달려 걱정과 슬픔에 가슴이 아플 것이다. 치욕과 멸시와 불법적인 처사를 당할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을 묻으면서 자연스럽게 흐르는 눈물을 억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결론은 언제나 주의 뜻이니, 주의 뜻을 따르자는 그 한 가지일 것이다. 또한 십자가는 우리에게 인내와 순종을 훈련시킨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약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징벌인 경우가 있다. 불신자는 고질적이며 철두철미한 악의 노예와 같이 징계를 받으면 더욱 악하게 되고 더욱 고집을 부린다. 그러나 신자는 자유의 몸으로 태어난 아들같이 회개할 줄 안다”.(III.viii.2-10)

갈뱅은 신자들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다고 말한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인내와 순종을 훈련시키며, 때로는 신자에게 약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징벌로서 오기도 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 징벌의 목적은 “세상과 함께 죄정함을 받지 않게 하는 것”(고전 11:32)이라고 한다.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첫째는 의와 공정이요, 다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신다는 것을 알고 인내할 수 있다고 한다. 그는 우리가 받는 고난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한 마음과 평온한 마음으로 그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인가?라고 반문한다.

갈뱅은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생활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내세에 대한 명상을 통하여 지상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III.IX.3) 지상생활이 비록 허무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하며, 영생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죽음의 공포를 배격할 수 있다고 한다.

갈땡은 하나님께서 주신 현세생활의 보조수단들을 신자답게 사용할 것을 권한다. 그는 엄격한 금욕과 잘못된 방종 양쪽을 모두 배제한다.(Ⅲ.X.1)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은 신자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신자들을 멸망시키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므로 신자들이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물을 주신 이를 바라볼 때, 신자들은 응졸한 마음을 버릴 수 있고, 또한 영생을 갈망하는 것을 통하여 신자의 외면적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다고 한다.

2. 한국 장로교회의 초기의 영성

한국에 기독교가 전파된 이후, 세계의 다른 어느 지역에서보다 선교의 효과가 높았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별로 없다. 그러나 이러한 선교의 성공의 원인을 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긍정적인 요인들을 근거로 기독교가 전파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신앙적으로 볼 때는 다소 부정적인 요인들을 타고 기독교가 전파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백낙준은 종교, 사회, 교육, 정치 등 모든 차원에서 붕괴되던 한국의 변천 과정에 기독교가 전래된 것을 결정적 요인으로 보고 있다. 김재준도 독립을 잃어버린 망국의 백성으로서 자연히 사람들은 영적이고 타계적인 차원을 동경하게 된 때에 기독교에서 그런 충족감을 느낀 것으로 보았다. 한편 유동식은 한국인의 의식구조도 기독교의 급성장에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대체로 한국인의 의식은 샤머니즘과 유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는데 그 특성은 주체성의 상실과 의타심이라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불안한 세월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운명을 맡김으로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가 있었다고 본다. 한국에서 전도를 했던 존스(George Jones)는 한국인이 종교

성이 강한 민족인데 그런 의식구조가 틀림없이 급성장의 요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기일(J.S.Gale)은 한국에서는 기독교가 전파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라는 신적 존재에 대한 일종의 공통적 개념이 있어서 기독교의 야웨를 큰 어려움없이 인정하고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며 자기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태초에 어떤 분이 천지를 창조하시다.”라고 성서를 읽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자연스럽게 말하곤 하였다. 서명원은 19세기 반세기의 상황을 성찰한 후 한국에서는 기독교가 전래되었을 때 종교적인 저항이 크게 없었고 샤머니즘이 기독교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헌트(E.N.Hunt)는 한미관계도 기독교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그는 서구 기독교가 거의 예외없이 피선교지에서 겪었던 정치적 관계의 불편이 한국에서는 별로 없었음을 지적한다.²⁵⁾

이와 같이 한국에서 기독교가 쉽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을 사회,역사적 배경이나 종교적 배경에서 찾는 의견도 있지만, 서구적인 문물과 교양을 접한 사람들이 위기에 빠진 조국의 형편을 서구의 근대화를 통하여 되살리기 위한 방법으로써 기독교의 수용에 적극 기여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들 지식층은 19세기 후반기에 유교적 소양을 갖춘 양반층으로부터 발전되어 나왔다. 이들은 서구 사상적 유산의 매개층이었다. 이들의 서구사상에 대한 지식은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서적들에 주로 의존하였고, 이들 중 일부는 중국, 일본, 유럽과 미국을 직접 여행하거나, 그 곳에서 공부를 한 사람도 있다. 이들 층은 자신들이 당면한 심각한 사회적 위기를 성리학적으로 사회를 재구조화함에 의해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서구적 유형의 사회를 본받아 ‘근대화

25) 서정운, “초기 한국 장로교회의 성장과 선교사들의 신앙정신”, 『교회와 신학』 13집, 1981. pp. 170-174 요약.

(개화)'함으로써 극복하려 했다. 이들 층의 발전과 그들의 초기 개신교와의 관계는 한국 개신교의 운명에 결정적이었다. 실제로 이들 영향 때문에 일제로부터 한국이 해방되었을 때, 사람들은 감히 한국 사회를 조선 왕조로 복귀시키고자 시도하지 않고, 자유 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수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²⁶⁾

민경배 교수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한다. 그는 서구의 문물을 접한 사람들이 한국의 대중들을 계몽하여 민족국가의 틀을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조국의 근대화를 꾀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미 근대화를 이룬 서구의 기독교를 택하였다고 한다.

“이들 지식층은 근대 서구적 교육, 새로운 사회문화적 운동 그리고 개신교를 통해서 대중들이 계몽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만이 독립되고 자주적인 민족국가를 세우는 유일한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들에 의하면 근대화가 한국 민족의 독립을 위한 근본적인 전제이며, 지금까지의 신유교는 이제 더 이상 사회의 윤리 및 종교적 바탕이 될 수 없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앞으로 근대화될 사회의 종교 윤리적 바탕은, 이미 근대화되었고 산업화된 서구 제국의 종교, 곧 개신교이어야 한다고 믿었다.”²⁷⁾

26) 차성환, “한국 초기 개신교 선교사들의 종교성과 근대적 삶의 형성”, 신학사상, 73집, 1991. p. 433.

27) 민경배, 「교회와 민족」, (서울, 1981), p. 86-88참조.

차성환, “한국 초기 개신교 선교사들의 종교성과 근대적 삶의 형성”, 신학사상, 73집, 1991, p. 437에서 재인용.

김인수 교수는 이러한 여러 견해들을 포함하면서도, 자신만의 또 다른 견해를 제시한다. 그가 제시하는 견해의 특징은 위의 사람들에 비하여, 한국교회 선교의 성공적인 결과를 성령의 역사에 돌린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교회 선교의 성공의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제시한다.

“첫째, 기독교가 한국에 선교될 무렵, 한국에는 강력한 국교(國敎)가 없었다. 둘째, 한국은 기독교에 들어왔을 당시 국내외적으로 무척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어떤 새로운 힘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셋째, 국왕이 공개적으로 기독교에 대해 호의를 보인 점이였다. 넷째, 다른 아시아 제국과 같이 서구의 식민지 경험이 없어서 서구와 서구 종교에 대한 반감이 없었다는 점이다. 다섯째, 한국인들의 전도열을 들 수 있다. 여섯째,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자국어인 성경, 무엇보다도 쉽고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일찍이 확보하였다. 또한 초기부터 성경공부, 즉 사경회를 열심히 했다. 이와 더불어 문자와 언어의 통일이 있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일곱째,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신앙과 생활을 양분시키지 않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은 즉시 생활의 변혁을 가져오게 하는 정책을 수립한 점이다. 여덟째, 한국교회는 교인들의 기도운동에 힘입어 크게 성장하였다. 아홉째, 한국교회는 사회개혁과 애국애족의 교회로 정착했다. 열번째, 한국교회는 권징과 치리에 철저한 교회였다.”²⁸⁾

필자는 이러한 초기 한국 장로교의 선교에 있어서의 성공의 원인들과 더불어 초기 선교사들의 신앙유형과 선교방법을 살펴보는 것이 초기 한국 장

28) 김인수, 한국 기독교회의 역사,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7. pp. 208-214.

로 교회의 영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1) 초기 선교사들의 신앙유형과 선교방법

서정운 교수는 초기에 한국에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들이 주로 경건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로써, 신앙적으로는 경건주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었고, 제2의 오순절운동이라고 불릴만한 기독교 학생 자발운동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서 순수한 복음의 열정만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었다고 주장한다.

“한국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위대한 세기’, 또는 ‘선교의 세기’로 불리우는 19세기에서 신앙정신이 굳은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자기들의 교단의 파송을 받기는 하였지만, 정신사적(精神史的)으로는 경건주의자들의 후예들이며, 경건한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이었다. 감정적으로는 체험적이고 죄와 심판과 그리스도의 속죄와 영생을 강조하는 개인구원과 교회설립을 위주로 하는 정신이 투철하였다. 기일은 자신이 한국으로 떠나기 직전에 무디로부터 받았던 격려를 오랜동안 감격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언더우드는 극적으로 한국선교를 결정하고 입국하여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선교활동을 하였다. 마포삼열은 그를 매우 정열적이고 강인한 신앙을 가진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언더우드의 영향으로 한국에 온 이올서(W.D.Reynolds)도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접하여 건설하고 강한 경건심을 지니게 되기를 원하다’라고 자신의 소원을 표현하였다. 콕안런(Charles A.Clark)도 비슷한 인물이었다. 그는 그의 시대에 한국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나라였고, 그 곳에서 가장 많은 희생을

치를 것으로 예상하고 한국에 오게 되었다고 회상하였다.

이 시절의 젊은이들에게는 '이 세대 안에 세계의 복음화(The Evangelization of the World in This Generation)'라는 표어를 가지고 활동하던 기독교학생자발운동(Student Volunteer Movement)의 영향으로 희생적으로 자신을 선교사업에 헌신하려는 정신이 매우 강하였다. 이 운동은 제2의 오순절운동이라고 불릴 정도로 선교운동에 강렬한 영향을 미쳤는데 마포삼열이나 배위량(William M. Baird)을 위시한 많은 초기 선교사들이 이 운동의 영향을 받았다."²⁹⁾

서정운 교수는 이들이 비록 선교의 열정은 대단히 뜨거운 사람들이었지만, 학문적으로 별로 뛰어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음을 지적하며, 조심스럽게 이들에게 근본주의적 경향이 있었음을 시사하면서, 이들은 성서중심이라는 전제와 타계적인 종말사상을 가지고 선교에 임했다고 말한다.

“초기의 선교사들은 학문적으로는 위대한 학자들은 아니었다. 그들은 대체로 근본주의자들이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한국인으로서 일찍 신학적 안목을 넓혔고 초기 선교사들에 대해서 상당한 직접적인 앎이 있는 것으로 믿어지는 김재준은 한국 장로교회의 신학적 사고방식은 근본주의자들이었던 선교사들에 의해서 형성된 것으로 말했다. 그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주도된 초기의 한국 장로교회의 신학교육이 일정한 근본주의 신조의 교화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한국 장로교회에서 근본주의 이외의 신학은 교묘하게 탄압받아 왔다고 함으로써 초창기의 선교사들이 완고한 근본주의자들이었음을 시사

29) 서정운, “초기 한국 장로교회의 성장과 선교사들의 신앙정신”, 『교회와 신학』 13집, 1981. pp. 176-179에서 재인용.

한다.

대개의 사람들은 근본주의라고 불리우는 것을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고 보수적 복음주의자라는 표현을 더 좋아한다. 그런데 이런 근본주의자들의 특징을 간단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임스 바(James Barr)의 의견으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성경 무오설의 강조, ②현대신학과 성서 비평학의 방법, 결과, 및 내용에 대한 강한 혐오, 그리고 ③그들의 신앙적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자는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신념들을 가짐. 그러나 우리가 초기의 선교사들을 이런 범주에 거침없이 서슴없이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본격적인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 온 초기 선교사들이 부딪혔던 급선무는 인간구원을 앞세운 전도였고, 그 이외의 일들은 여타의 것들이었다. 따라서 이들의 진정한 관심은 신학사상 논쟁에 있지 않고, 오직 한국의 복음화에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한국 복음화라는 급선무를 위하여 성서중심이라는 선교의 핵심과 타계적인 종말사상을 가지고 그들의 선교의 열정을 불태웠다.”³⁰⁾

한국의 초기 선교방법으로는 네비우스에 의해서 한국에서 활동하던 젊은 선교사들에게 전해진 방법이 유명하다. 이것을 네비우스 선교정책이라고 부른다. 네비우스 선교정책은 한국 선교의 발전에 대단히 큰 영향을 끼쳤다는 평을 받기도 하고, 반면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을 받기도 한다.

한국에 대한 네비우스의 선교정책은 처음에 열가지로 제시되었었는데, 언더우드와 이를 다시 네가지로 요약하였다.³¹⁾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네비우

30) 서정운, “초기 한국 장로교회의 성장과 선교사들의 신앙정신”, 『교회와 신학』 13집, 1981. pp.180-186에서 재인용.

스 선교정책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1.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처해 있는 일터에 남아서 자신의 일을 하면서 자활(自活)해야 하며 자신의 언행(言行)으로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

2. 교회의 방법들과 기구(機構)는 한국교회가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발전되어야 한다.

3. 교회는 최선의 자질을 갖추고 교회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서 정식 사역자로 일하게 해야 한다.

4. 예배당은 토착적인 모양과 기독교인들 자신의 재원을 가지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건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선교정책은 한국 사회를 근대시민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의존심과 사대사상이 강했던 한국민들에게 자립정신을 갖게 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선교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지적도 있다. 자립, 자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네비우스가 처음에 말했던 협력정신을 잃어버리고, 지나치게 개교회주의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이며, 미국 북장로교회 해외 선교 동아시아 담당 총무인 스미스(J.S.Smith)는 네비우스 정책의 무리한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³²⁾

첫째, 한 가지 신학만을 가르쳤기 때문에 자유주의신학이나 극단적인 전통신학에 적응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교회의 분열이 생겼다.

둘째, 성경만 가르쳤기 때문에 일반 문화적 교양지식의 부족으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도록 하였다.

셋째, 교회가 영적으로만 성장하니 일반 사회와 유리된 공동체가 되었다.

31) 김인수, 한국 기독교회의 역사,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7. p.199.

32) 김인수, 한국 기독교회의 역사, (서울: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7), pp. 201-202.

넷째, 신학교육을 지방 교인 정도에 조금 넘는 정도로 시행했으므로 훈련된 유능한 지도자의 대처가 부족하였다.

김인수 교수는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네비우스는 처음부터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 협력과 연합을 누누히 강조했었다고 하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은 네비우스 정책을 잘못 시행한 것의 결과이지 정책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서정운 교수는 네비우스 정책의 성과에 대하여 서명원은 회의적인 견해를 폈지만, 대다수의 선교사들이 그 방법이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던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이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사용한 방법은 네비우스원리였다. 이 원리는 오랫동안 프로테스탄트 선교원리를 지배한 경건주의 선교신학을 수정한 것인데, 대부분의 초기 선교사들은 이 방법이 한국교회의 성장에 큰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인정한다. 초기 선교사들보다 나중에 한국에서 일했던 서명원은 감리교회와 장로교회의 선교활동을 비교 연구한 결과 감리교 선교사들이 여러 지방에서 다른 선교방법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장로교회와 비슷한 결과를 냈음을 파악하고, 또한 평양, 대구, 서울 등지에서 이 원리를 동일하게 사용했지만 교회의 성장이 상이했음을 지적하면서 어떤 한가지를 한국교회 급성장의 획기적 조건으로 보는 견해의 위험성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선교사들은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한국교회 성장의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본다. 마포삼열은 한국적 상황에서 다소 수정을 가했어도 네비우스에게서 성경공부반 제도와 자립으로 간추릴 수 있는 두가지 기본적인 선교사상의 씨가 전래되어 왔다고 하였다. 광안련도 그랬고, 배위량도 네비우스의 생각이 초기에 있어서 우리

의 선교의 원리와 방법을 정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으며 선교사들이
합심해서 충실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방법을 사용하면 그들의
일은 놀라운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하였다.”³³⁾

(2) 초기 한국 장로교회의 성경에 대한 인식

한국교회에서는 처음부터 성경에 대한 인식이 분명했던 것으로 보인다.
선교 초기부터 이미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준비된
성경을 가지고 선교에 임했기 때문에 중국이나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서
볼 수 없었던 선교의 성과를 올릴 수 있었으리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김인수 교수는 한국인들이 성경을 대단히 아꼈으며, 성경공부를 시작으로해
발전한 사경회가 한국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
이 주장한다.

“한국교회만큼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생활하려
고 노력하는 교회도 드물 것이다. 이러한 한국 교회의 성경사랑의
정신은 선교사들의 사경회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1890년 한
국에서 최초로 일곱사람이 언더우드의 집 서남쪽 모퉁이에 있는 작
은 방에 모여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성경공부반이 시작되었다. 이 사
경회는 네비우스 선교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다. 지교회의 지
도자들을 일 년에 두 차례씩 선교 지부에 모아 6주에서 두 달 동안
계속하여 성경을 집중적으로 가르쳤다. 이런 사경회 형식의 성경공
부반이 후에 신학교로 발전하였다.

1893년부터는 모든 교회가 사경회 모임을 갖기 시작하였다. 사경

33) 서정운, “초기 한국 장로교회의 성장과 선교사들의 신앙정신”, 『교회와 신학』
13집,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81), pp. 173-174에서 재인용.

회의 상급반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이었지만 기초반에서는 농한기에 별로 할 일이 없이 소일하고 있는 교인들을 상대로 실시하였다. 기간은 다양하게 일 주일에서 두 달까지로 지역의 형편에 따라 신축성 있게 진행되었다. 수백 리 떨어진 원거리에서 걸어오는 교인들도 있었다. 여자 선교사 프레이(Miss Lulu E. Prey)는 한국인들의 성경공부의 열성에 대해 연설하면서 어떤 여자는 백 리 길을 걸어서 왔고, 어떤 여자는 어린애까지 업고 자기들이 먹을 쌀을 이고 왔다고 말했다.

이 사경회를 통해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였을 뿐 아니라 매서인, 전도자, 조사, 전도부인 그리고 목사까지 배출되었다. 따라서 한국 교회 성장의 밑거름은 사경회 제도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³⁴⁾

민경배 교수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늘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썼으며, 이러한 모습을 볼 때, 한국의 교회를 성서의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성경을 탐독하고 그 말씀 그대로 살려고 애썼다. 성경을 함께 읽어가는 사경회가 우리 나라에서처럼 성대하게 운집되어 진행된 곳이 세상에서 그리 많지 않았다. ‘국제선교리뷰’는 초대 한국 교회의 특징 가운데 첫째로 성서에 대한 강조를 들고 있었다. ‘성서의 권위와 그 가치에 대한 깊은 확신이 널리 퍼져 있으며 …한국 사람들은 성경을 그들 생활의 최

34) 김인수, 한국 기독교회의 역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7), pp. 167-168.

심부에 가져다 놓고 있다.’ 한국 교회가 성서의 교회라는 말은 그 견줄 수 없는 자랑이요, 특징이었다. 이 성서의 소중한 영접과 열의 넘치는 성서 연구야말로 한국 교회 전체에 넘쳐 흐르는 영역의 참된 연원(淵源)이었다.”³⁵⁾

서정운 교수는 마포삼열 자신이 말한 선교 정신과 방법을 제시하면서 한국교회의 선교에 있어서 성서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했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1934년 마포삼열은 선교 50주년 기념예배에서 자기의 신념을 피력하면서 ‘내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복음전도를 개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심한 바가 있다. 그것은 십자가의 도 이외에는 전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든지 죽든지 구원의 복음만을 전하기로 굳게 결심하였었다.’고 하였다. 그는 그것이 사도 바울처럼 하는 것이며 가장 올바른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사도 바울의 결심하였던 바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으며, 만일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결심하였다’고 하였다. 그는 한국선교의 성공의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대의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다. 25년 후, 회년 축하석상에서 마포삼열은 성서가 한국선교의 중심이었음을 다시 한 번 역설하였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말씀을 영화롭게 하실 것을 기대할 권리를 갖게

35)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기독교서회, 1972), p. 147.

되고, 믿는자의 중생이라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확신 속에서 성서가 우리들의 일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을 독특하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켜온 것이 50년간의 한국 복음화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요소였다는 확신을 나는 주저없이 말할 수 있다' 이런 그의 주장에는 성서적 문자주의의 분위기가 다소 들어 있다. 성서를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철저히 주입식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정신, 그리고 그것이 한국 복음화의 첩경이라는 소신이 철두철미하였다.”³⁶⁾

이와 같이 한국 초기의 선교에 있어서 선교사들이 성경을 중시하였고, 이들을 통하여 성경을 받아들인 한국 초기 교회의 신자들도 성경을 대단히 중시하였던 것이다. 네비우스 선교정책의 다섯째 항목에서도 말씀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사람의 힘만이 사람을 개종시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다. 따라서 될 수록 빨리 안전하고도 명확한 성경을 이들에게 주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언급에서 우리는 비록 짧은 표현이기는 하지만, 이들이 성경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중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초기 한국 장로교회의 기도의 양태

앞에서 한국에서 기독교가 쉽게 전파되게 된 배경에는 샤마니즘적인 한국의 종교 분위기가 다소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한 견해들을 보았다. 이러한 모습을 지적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김인수 교수는 한국 사람들이 기도를 하

36) 서정운, 같은 책, pp. 183-185에서 재인용.

는 습성을 원래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습성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후에 사람들이 더욱 기도에 열중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고 본다.

“한국 사람들은 본래 하늘에 기도하는 습성이 있었는데 기독교에 귀의한 후 한국 교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였다. 이제 피조물이나 쓸데없는 헛된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 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또 한국에 기독교가 유입되던 시기는 국가, 민족적으로 무척 어려운 때였다. 그러므로 개인과 가정 그리고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할 일이 너무도 많았다. 예배나 개인적 기도의 시간이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1907년 대부흥운동 기간에 한국에서 세계 어느 교회에도 없는 독특한 새벽기도회, 철야기도회, 통성기도회가 일어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³⁷⁾

그는 또한 1907년의 대부흥운동도 기도의 열심 즉 길선주로부터 시작된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그 기반이 준비되었던 것으로 보면서, 길선주로 인해 시작된 새벽기도회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1907년 부흥의 불길이 붙게 된 동기 가운데 하나는 그 교회가 새벽기도회로 이 사경회를 준비하였기 때문이었다. 그 전 해 가을부터 시작된 새벽기도회는 길선주 장로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 새벽기도회야말로 세계 어느 교회도 갖지 않은 한국 교회 특유의 기도회로써 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길선주 장로는 예수를 믿은 후에도 믿기 전에 행하던 관성교의 새벽 예불 습관이 남아 있었으며

37) 김인수, 같은 책, p. 213.

로 같은 교회 장로인 박치록(朴致錄)과 함께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걱정하며 새벽에 교회에 나가 기도하였다. 이에 여러 교인들이 호응하여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였는데, 얼마 후에는 300-500명의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하였다. 길 장로는 교회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매일 수백의 교인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당회로부터 정식 허가를 얻음으로써 공식적으로 새벽기도회가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한국교회의 새벽기도회는 1906년 가을에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시작된 것이다. 여기에서 비롯한 한국교회의 새벽기도회는 수많은 동네의 조용한 새벽을 예배당에서 울리는 새벽 종소리로 깨우기까지 발전하였다. 바깥 공기는 살을 에일 정도로 혹독했고, 예배당 안도 뼈를 쭈시는 추위로 가득 차 있었지만 교인들의 마음은 따뜻했고 기도의 열기는 뜨겁기만 하였다.

따라서 1907년 대부흥운동의 직접적인 원인은 두 가지 흐름 즉 선교사들의 자성하는 성경공부와 길선주 장로의 새벽기도회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이 운동은 선교사들의 ‘말씀공부’와 한국 지도자들의 ‘기도’가 어우러져 이룩된 성령의 역사였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기도에 기인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³⁸⁾

(4) 초기 한국 장로교회의 찬송의 양태

기독교가 세계 각지에 전파되면서 찬송 문화도 자연히 각지의 특성에 따라 생기게 되었다. 어떤 지역에서는 선교사들이 전해준 것을 그대로 수용한 곳도 있고, 또 선교를 받은 지역의 음악 문화에 맞추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38) 같은 책, pp. 246-247.

방법을 개발한 지역도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초기 선교 당시 찬송문화가 발달하지 못하였는데, 그 원인은 유교적인 음악경시 풍조 때문이었다. 유교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교회에서도 음악을 소홀히 하였고, 그 결과 한국의 정서를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송들을 갖지 못하였다. 단지 서양의 곡을 그대로 받아서 번역한 정도의 찬송을 가지게 되었을 뿐이다. 이에 대하여 조인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³⁹⁾

“오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이어오면서 우리 조상들은 우리 나름의 음악문화를 형성하여 왔다. 세계 어느 민족이나 나름의 음악적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인도나 중국, 그리고 우리처럼 독특한 음악적 언어를 가진 민족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이처럼 훌륭한 음악문화를 지녔던 조선사회는 유교적 전통에 의한 계급사회였기 때문에 음악 연주자들을 천시하였다. 남이 연주하는 음악은 즐기면서도 자신이 직접 음악인의 길을 걷는 것을 거부했던 것이고, 이는 기독교를 이 땅에 처음 가지고 들어왔던 선교사들에게는 무척 곤혹스러운 상황이었으리라 짐작된다. 실제로 교회에서 우리의 전통음악이 배제되었던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어쨌든 초창기 선교사들은 성경과 찬송을 우리말로 번역하였다. 다행히(?) 우리보다 먼저 기독교가 들어가 있던 중국으로부터 가져온 성경과 찬송가를 번역하는 것이 훨씬 용이했다. 이와 함께 선교사들은 우리의 전통적 선율들을 사용하여 찬송가 부르기를 시도했

39) 조인형, “한국찬송가의 역사와 과제”, 『기독교사상』, (대한기독교서회, 1997, 9월호), p. 23-24.

지만, 이는 한국인들로부터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였다. 이는 유교적 전통의 영향으로서 과거 기방(妓房)에서나 즐기던 음악들을, 자신들이 직접 노래한다는 것을 한국교인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당시 사회적으로 우리의 전통적인 것보다는 외국의 새로운 문화를 따르는 것이 좋아 보이던 사회적 경향도 이에 한몫을 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부진하게 이루어진 초기 한국교회의 찬송의 발전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에 최초의 찬송가집이 출판된 것은 이 땅이 선교사에 의해 교회가 세워진 때로부터 5년이 지난 1892년이였다.(감리교 선교사였던 George H. Jones와 Louis G. Rothweiler양이 펴낸 <찬미가>). 악보없이 가사만 인쇄된 이 찬송가집에는 당시 이미 교인들에 의해 애창되던 번역찬송 27곡이 수록되었다. 악보를 갖춘 최초의 찬송가집은 1894년에 언더우드 목사에 의해 발간된 <찬양가> 인데, 한국인의 창작 찬송이 수록된 최초의 찬송가집으로 기록된다. 1895년에는 장로교와 감리교가 따로 찬송가집을 출판하였고(<찬양가> 는 남쪽 장로교에서, 1892년의 <찬미가> 를 수정 보완한 <찬미가> 는 감리교에서 각각 사용하였다), 같은 해에 장로교의 공인 찬송가로 <찬성시> (1895,북장로교선교부, 그레함 리와 기포드 부인 편집)가 출판되게 된다.

서로 다른 찬송가를 사용했던 장로교와 감리교는 당시 한국에 들어와 있던 복음주의 선교단체들의 교과 연합운동에 힘입어 1908년에 장·감연합공의회 편찬으로 <찬송가> 를 발간하게 된다. 이 찬송가집은 초기 번역보다 세련미가 있었고, 특히 한국 전통의 가락으로

된 곡조를 최초로 실었는데, 1931년 <신정찬송가> (선교사연합공의회 편찬, 조선야소교서회 발행)가 나오기 전까지 22년 동안 모두 43판 발행에 총 87만 4,500부나 간행되어 당시로서는 엄청난 기록을 세우게 된다.”

(5) 한국 장로교회의 믿음의 양태

한국의 초기 선교 역사에 있어서의 믿음의 양태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논한 많은 학자들이 선교의 여러 면을 다양하게 언급하면서도 믿음이라는 신자들의 내면의 상태를 파악하여 전달하는 데는 다소 소홀하였다는 생각이 든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기독교 이전의 샤머니즘적 신앙 형태가 기독교 수용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지적하고 있으나, 이러한 요인들이 어떻게 기독교의 믿음으로 발전하였으며, 또한 그 결과 초기 신자들에게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를 보여주는 진술들을 만나기가 어렵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한국 초기 신자들 중의 하나인 이수정의 신앙고백문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데, 필자는 그의 신앙고백문을 통하여 그 당시 사람들의 믿음의 양태를 다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수정의 신앙고백(1883.5.)

“신약 요한복음 14장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너희 안에 있다’ 고 하셨습니다. 그 뜻은 분명히 드러나 있으나 그 의미는 오묘하여 이에 설교하신 요지는 신앙의 관건이 되는 것이니 배우는 자가 깊이 탐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

로 예수께서 이 뜻에 대하여 반복하여 자세히 말씀하셨으니,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당연히 분명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저도 이에 대하여 열심히 연구하여 점차 깨달았습니다. 예수께서 힘써 깨우쳐 주시고 이로써 때때로 드러내 보여주시되 '대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하셨으니 곧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감응하는 이치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확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요, 나는 곧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치는 이미 곧 바로 이해하기 쉬워 번거롭게 깊이 파고들 필요가 없으니 이제 제가 다시 설명할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만, 굳이 말씀 드리자면 예수 당시 사도들은 친히 극진한 가르침을 받아 더 이상 남은 느낌이 없었지만 오직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성스러운 시대에서 이미 멀어 배우는 자가 의미와 이치에 투철하지 않으면 큰 믿음이 나올 수 없을까 두렵습니다. 대개 하나님과 인간의 서로 감응하는 이치가 이와 같습니다. 비유컨대 등의 심지가 타지 않으면 빛이 없으니, 등의 심지는 도(道)를 향한 마음ियो, 타는 것은 신앙심이며, 불은 하나님의 감응(神感)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감응은 신앙심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갓 심지만 있으면 등이 되지 못하니 그러므로 타지 않을 때는 끝내 빛을 보지 못하며, 믿지 않을 때는 끝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만약 단지 세례를 받고 남을 의지하여 생각한다 하더라도 마음 속에 진실한 믿음이 없으면 성도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심지가 끝내 타지 않으면 부숴 버리는 것과 같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 것은 소리가 종(鐘)에

있는 것과 같으니, 치면 소리가 납니다. 추(鎚)로 소리를 냅니다. 종과 추가 비록 갖추어 지더라도 각각 다른 곳에 걸려 있다면 소리가 나겠습니까. 그러므로 등은 큰 심지로써 태우면 빛이 크고, 종은 작은 추로써 두드리면 소리가 작은 즉 많이 구하면 많이 주어지고 적게 믿으면 적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오직 이루어지지 않을 리 없습니다. 만약 삼위일체의 뜻을 믿으면 곧 자기 자신이 삼위와 더불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대저 이 마음을 하나님의 전(殿)이라고 까지 일컫게 되는 것이니, 그 신앙심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몸 안에 있고, 하나된 마음이 극진해지면 그 사이에 터럭도 용납하지 못하니, 위나 아래 사망에 있지 않고 그의 움직임과 고요함, 말과 침묵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었는지 아닌지 확실히 알고자 하면 다만 스스로의 신앙심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볼 일이지 스승에게 묻거나 하나님께 묻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이 감응을 이루는 분명한 체험입니다. 다만 이 뜻을 깊이 연구하지 않더라도, 위로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반드시 계시고, 성령이 반드시 계심을 확신한 즉 죄 사(赦)함을 얻고 반드시 천국에 이를 것을 의심하지 않는 자는 성령의 감화로 마귀의 소요를 당하지 않고 어두운 구렁이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특히 넓은 은혜요, 이치에 통달한 여부와 상관없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불교설(佛設)이 될 것입니다. 불교설에서는 깨닫지 못하면 부처가 될 수 없다고 하니 대개 공중에 사다리를 걸어두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넘어 오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聖敎)와는 어렵고 쉬움이 아주 다르며, 허망함과 진실함도 곧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⁴⁰⁾

40) 김승태, “이수정이 남긴 개신교 최초의 신앙고백문과 신앙시”, 『복음과 상황』

그의 신앙고백문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향한 철저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믿음에 대한 그의 강조 속에는 갈뱅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서의 믿음”이라는 개념은 별로 없다. 그는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말하기 보다는 오히려 사람이 철저히 자기의 믿음을 지켜야 함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는 하나님과의 감응,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 그리고 신자가 세례를 받음도 신자 스스로 마음에 믿음을 갖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역설한다. 그의 믿음에 대한 견해가 완전히 그릇되고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겠지만, 그가 믿음을 말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사람의 역할만을 강조했다는 점에서는 갈뱅이 말하는 믿음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6) 초기 한국 장로교회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태

한국의 초기의 신자들의 삶에서 특징적이었던 것들 중의 하나는 그들의 신앙이 삶과 일치하는 것이었다는 점이다. 그들은 기독교신앙을 받아들이기 이전의 삶의 양식에서 기독교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은 과감히 버렸다. 즉 신앙이 안과 밖에서 일치하였던 것이다. 또한 복음을 전해주었던 선교사들도 내세지향주의만을 전한 것이 아니고 현실생활에서 사회, 문화적으로 개혁해야 할 것들을 과감히 개혁하는 노력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이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여 기독교가 한국 사람들 사이에 쉽게 퍼져 갈 수 있었다.

“한국 교회는 초기부터 신앙과 생활을 양분시키지 않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은 즉시 생활의 변혁을 가져오게 하는 정책을

수립했다. 내면적 신앙과 외면적 생활을 일치시키는 신앙의 형태를 수용했다. 삶의 변화는 사회, 민족, 국가의 변화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수난기에 한국 교회는 민족과 더불어 고난의 과정을 경과하였고, 개화와 항일의 대열에 앞장 설 수 있었다.

한국의 선교가 의료와 교육에서 출발하였다면 이는 곧 개인생활의 변혁, 민족의 개화, 국가의 독립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회구원의 축에서 신앙이 정착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입신의 동기에 개화와 애국의 관점에서 기독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해 준다. 개신교가 처음부터 내세지향적 개인구원에만 치중했다면 개화와 민족운동을 지향했던 인사들의 입교는 처음부터 부진했을 것이다. 따라서 초기 선교사들은 여자학교와 맹인학교를 세우고, 언더우드는 등유와 농기구를 수입했고, 헤론은 재봉틀을 수입하여 한국인들의 생활 개혁에 힘썼던 것이다.

평양에서 승실학교를 세운 베어드는 철저한 복음주의자였다. 그러나 그의 교육 철학은 현실주의에 기초한 복음주의를 교수하는 것이었다. 그는 항상 그의 학생들에게 강조하기를 '내가 조선에 와서 전도하는 목적은 장래 천당에 가서 영적인 구원얻는 것보다도 현재 육적인 구원으로써 전도의 요체를 삼고 있는 것이다'라고 역설하였다. 물론 그는 교육자로서 학생들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이 말 속에 복음주의와 현실주의가 양분되지 않고 병립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교회는 사회개혁과 애국애족의 교회로 정착했다. 초기부터 한국교회는 봉건적, 유교적 전통에 매여 있는 사회를 기초부터 개혁하는 일에 앞장 섰다. 여성의 인권 신장, 차별적 신분제도의 혁신, 민권 존중, 노동 가치의 고양, 미신 타파 등의 사회개혁은 많은 사

람들의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자연스럽게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다. 또한 일제의 억압 속에서 교회가 애국애족의 모습을 나타낼 때 자연스럽게 기독교가 외래 종교지만 우리 민족이 믿기에 좋은 종교로 인식하게 되었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⁴¹⁾

1907년의 대부흥운동도 신자들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를 불러 일으켰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독교의 신앙이 마음 속의 신앙으로만 제한된 것이 아니고, 삶의 모든 부분에 그대로 적용되게 된 것이다.

“대부흥운동은 한국인들로 하여금 진정한 기독교의 진리를 터득하게 하였으며 기독교 진리가 한국 기독교인들 마음에 뿌리내리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여러 가지 동기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나 참 기독교 진리를 터득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참된 회개와 성신의 감동,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결단하는 삶, 즉 전형적인 그리스도인 됨의 과정을 통과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방치해 두었던 사당(devil house)들을 이 부흥운동이 지난 후 헐어 버리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난 현상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다.

이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였는데 지금까지 유교적 관념으로 전혀 죄라고 생각지 않았던 축첩, 노비 소유 등의 죄악을 고백하고 참회하면서 첩과 소실을 정리하고, 노비를 해방시키는 등의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른 행위들이 정착되기 시작했다.”⁴²⁾

41) 김인수, 같은 책, pp. 212-214.

3. 현재 한국 장로교회의 영성

필자는 한국 장로교회의 현재의 영성을 논하기 위하여 먼저 한국의 신학의 큰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리라고 생각한다.

이수영 교수는 한국의 신학의 큰 흐름을 세가지로 보는데, 그 중 한 가지는 성경연구와 그 위에 선 경건한 삶의 추구 보다는 차라리 무지를 향하는 도피적 신비주의와 기복주의적 관심으로 지배되는 신앙형태를 지니는 것으로서 거의 무신학적이므로 학문적으로 논할 가치가 거의 없는 것이고, 나머지 둘은 중세 로마 가톨릭에 맞서 일어난 종교개혁운동의 근본사상을 고수하는 깔뱅적, 복음적, 성경적 개혁주의 보수신학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은 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다양한 사상의 수용과 문화의 접목을 표방하는 일군의 급진적 신학경향들이라고 하면서 그는 양쪽의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⁴³⁾

“전자는 그 근저에 인간의 죄와 타락성에 대한 깊은 인식을 깔고 그 위에 하나님의 절대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은총, 성령의 역사의 절대능력, 성경의 절대권위를 중시하고 강조하는 신학으로서, 다시 말하면 ‘신본주의 계시와 은총의 신학’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신학은 첫째로 그 신학의 구조, 방법, 체질이 사변적이고 연역적이며 교조적인가 하면, 둘째로 그 관심이 신앙생활의 수직적인 면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교인들과 나아가서 일반 세상의 구체적 현실문제에 둔감해지기 쉬우며, 셋째로 교회의 사회

42) 같은 책, p. 225.

43) 이수영, “깔뱅 신학의 특징과 한국신학”, 같은 책, pp. 48-50.

적 책임성의 실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비판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이 개혁주의 보수신학이 본래 종교개혁자들이 지녔던 복음이해의 생동력과 뜨거움에서 떨어져 어떤 의미로 중세의 스킨라주의로 되돌아간 일면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반면, 포괄적으로 볼 때 결국 인본주의 자연신학이라 부를 수 있는 후자의 신학경향들은 그 문제접근 방법에 있어서 대체로 경험적이고, 귀납적이며, 신앙생활의 수직적인 면보다는 인간사회의 현실적인 문제나 문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행동적 사회참여를 강조하는 입장이 뚜렷하다. 그러나 이러한 신학이 빚어내는 결과는 종종 신앙생활의 수직적인 면이 망각되거나 하나님이 설 자리가 상실되고 복음 자체가 변질되며, 예배, 기도 등 경건생활에 대해 냉소적이거나 무관심해지는 역현상들 그리고 인간분위의 사회, 정치운동이었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것은 결국 개혁주의 보수신학과는 다른 관점에서의 로마 가톨릭 신학에로의 복귀, 즉 자연신학적 바탕 위에 서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자연신학의 기초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연적 인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이해, 즉 죄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손상받지 않고 남아 있는 인간의 본질적 능력, 곧 이성, 양심, 자유의지에의 신뢰에 있는데, 이러한 근본사고 속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와 성경적 계시 등의 절대성은 보장될 수가 없는 것이다. 전통 문화와 그 삶의 경험에서 한국적 신학의 출발점과 고유성을 찾으려는 시도는 성경적 계시의 상대화와 평행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한국 장로교회의 현재의 영성을 살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주로 위에서 말한 세가지 형태의 신학 흐름 중에서 갈뱅적, 복음적, 성경적 개혁주의 보수신학을 따르는 교회들의 영성을 살피게 될 것이다.

특히 한국 장로교회의 평신도들의 신앙의 양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박위근 목사가 자신의 논문을 위해 조사한 염천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자료⁴⁴⁾를 참고하고자 한다. 그 대상이 한 교회로 제한되어 있고, 설문자들의 대다수가 세례교인들이라서 질문의 응답에 대한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본 조사의 응답자 중에 세례교인과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 온 교인들이 결정적으로 많다는 사실은 교회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교인들의 신앙적인 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박위근 목사의 지적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 참고하고자 한다.

설문에 대한 응답자의 총 수는 140명인데, 세례교인이 108명, 학습교인이 17명, 유아세례 교인이 14명, 원입교인이 1명이다.

(1) 현재 한국 장로교회의 성경에 대한 인식

한국 초기의 선교사들은 그들 신학의 경향에 있어서 다소 근본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성서해석에 있어서도 문자적인 경향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와 인간의 구원의 도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무오의 말씀이었다. 초기 선교사들의 이러한 분위기의 영향으로 인하여 보수적인 한국 장로교회에서는 성서무오설과 축자영감설 등이 내려 오게 되었고, 이러한 이론들이 성서의 비평학과 부딪치면서 이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분열을 겪게 되었다.

김명용 교수는 성서를 대하는 근본주의적 태도는 개혁자 갈뱅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성경의 절대 무오설을 뒷받침 해주는 성경에 대

44) 박위근, “교회갱신의 과제와 그 방안에 관한 연구” -염천교회를 중심으로-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풀러신학교 (공동목회학박사학위논문), 1987.

한 축자영감설은 17세기 칼빈주의 정통주의에 의해 형성된 사상으로 19세기 말엽부터 20세기에 근본주의자들에 의해 계승되었다고 하면서 한국의 장로 교회들도 성경에 대하여 이러한 근본주의적인 경향을 상당히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⁴⁵⁾

한국교회가 성경을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잘못된 태도는 근본주의적 경향 뿐 아니라 성경에 대한 편중성에도 있다. 김중은 교수는 통계자료와 장일선 교수의 견해 등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⁴⁶⁾

“한국교회에서는 구약보다는 신약이 훨씬 많이 읽혀지고, 설교되어지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교회에서 구약본문이 설교에 사용되는 비율은 해방 전(16%)보다 해방 후(23%)에 약간 증가 추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개신교 1백년 역사동안 평균 26%에 불과하며 그것도 창세기, 출애굽기, 이사야, 시편 등 네 책 정도에 그 선호도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신구약 전체 66권 분량 가운데, 구약은 실제로 3% 정도만 한국 교회 강단의 설교본문으로 사용된다는 지적이다.

장일선 교수는 이런 현상의 이유를 ①초기 선교사들의 근본주의 신학적 경향 때문에 초기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근본주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만을 강조하는 신약편중의 가르침과 ②구약의 고등비평문제(김영주 목사의 창세기 저자문제, 김재준 목사의 오경 저자문제, 김기수 선교사의 요나서 해석문제 등) 때문에 비평적 구약해석이 이단시 되는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구약해석의 길은

45) 김명용, 열린신학 바른교회론, (서울: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97), pp. 200, 209.

46) 김중은, “구약도 자주 설교합시다”, 성경과 설교, (서울:한국성서학연구소, 1995), pp. 9-11.

막히고 교회 지도자들은 자연히 구약 취급을 기피하게 되었다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김중은 교수는 이와는 다소 다른 견해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한국교회에서 구약이 자리를 잃게 된 것은 근본주의 신학이나 고등비평의 문제 때문이 아니고, 한국 교회 1세기는 선교적인 세기로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리고 그와 직결되는 사도행전 이후 초대교회에서의 복음전파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신약의 본문들이 복음선포의 현장에서 더 시급히 요청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한국에서 구약성서가 신약보다 훨씬 나중에 번역이 완료된 것도 그 원인 중의 하나라고 말한다.

설교학 교수인 정장복 교수는 한국교회에서의 성경에 관한 또 다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한국교회에서는 설교 강단에서조차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오히려 설교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논리를 입증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어 비참한 결과를 낳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⁴⁷⁾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의 본문은 격식을 위하여 있는 징검다리로서 이용되었고, 그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전혀 언급하지도 않는 범법 행위를 저지르게 되었다. 그리고 설교자의 생각이나 경험을 입증이나 해 주는 근거로서 성구를 선택한 결과로 전락시켜 버리는 무서운 과오를 범하게 되었다. 이러한 비성서적 설교의 팽배로 설교 사역의 주인으로부터 분노의 말씀이 들려 오고 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는 회중들로부터 비참한 반응이 들려 오고 있다.”

47) 정장복, 설교학 서설, (서울: 엠마오, 1995), p. 76.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한국교회 내에서의 성경에 대한 여러 현상들을 분석한 학자들의 의견과 더불어 평신도들의 성경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⁴⁸⁾

위에서 언급한 염천교회 설문에서 보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80.7%가 확신한다고 대답했다. 성경을 읽는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매일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 36.3%였고, 가끔 읽는 사람들이 47.4%였다. 말씀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82.4%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 결과에 대하여 박위근 목사는 교인들 대부분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고,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도, 전체 응답자의 63.7%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는다는 것을 볼 때, 응답자들이 성경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고 대답을 한 것은 현실이 아니라 그 마음의 소원을 표현한 것이라고 결론을 짓는다. 이와 같은 결과 볼 때, 교인들의 실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현재 한국 장로교회의 기도의 양태

한국 장로교회는 세계에서 거의 볼 수 없을 만큼 기도를 강조하고 있다. 새벽기도, 심야기도, 철야기도 등은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기도의 모습들이 진정으로 온전한 마음과 순전한 뜻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진지한 반성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48) 박위근, 위의 논문, pp. 85-88.

한국 장로교회에서의 기도에 대하여 기복적인 기도로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지는 이미 오래 되었다. 한국교회의 기도현실, 특히 새벽기도에 대하여 은준관 교수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⁴⁹⁾

“제가 생각하기로는 새벽기도가 한국교회에서 강하게 부각된 것은 6.25 이후가 아닌가 싶은데요. 민족이 굉장한 수난을 받은 후에 신앙의 기본적인 전환이 와서 생존에 대한 위협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신앙으로 된 것의 결과가 새벽기도에 대한 열성으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새벽기도는 세계의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현상이고 한국 교회의 신앙의 파토스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동시에 문제점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지금 아는 새벽기도회의 장점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서너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새벽기도회를 너무 신비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거의 여성만의 새벽기도회로 전환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현대사회가 남자들은 직장 관계 때문에 새벽기도회에 참석하기가 힘들고 여자나 노인들이 많이 새벽기도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새벽기도의 경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기도가 마술의 수단으로 전락되는 경향이 보입니다. 네 번째는 새벽기도회가 무서운 영적인 힘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목회자의 기능 면에서 반을 차지한다면, 상대적으로 목회자의 목회의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데 초래하는 손실이 크다는 점입니다.”

49) 한완상 편,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 (서울: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pp. 185.

그는 또한 나름대로 이와 같은 기도의 문제에 대한 간단한 대안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⁵⁰⁾

“기도는 그것이 개인기도이든 공중기도이든간에 기도의 방향이, 우리 삶 전체가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좀더 훈련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행위라는 점입니다.”

한완상은 한국교회의 기도에 대한 대담에서 한국교회에서 목사들이 기도의 가르침과 훈련에 게을리함으로 인해 기도가 길어지고 맹목적화 되고 있음을 지적한다.⁵¹⁾

“제가 평신도로서 늘 생각해 오는 것은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이 기도를 왜 해야 하느냐, 기도의 목적, 아까 두 목사님께서 선교에 참여하려는 결단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 같구요. 그리고 기도의 스타일에 대해서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특히 장로일수록 강단에 올라가면 오래 기도하는데... 그 위에다 세계 평화까지... 우선 기도시간이 긴데다가 황설수설이고... 왜 기도를 해야 하느냐 하는 목적의식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제시된 학자들의 기도에 대한 의견과 더불어 한국교회 평신도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다음과 같다.⁵²⁾

50) 같은 책, p. 102.

51) 같은 책, p. 186.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에 대하여 87%가 믿는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10%는 자신은 비록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기도의 필요를 느낀다고 대답했고, 3%는 하나님께서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므로 잘 믿는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도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42%만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대답했고, 58%는 기도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런 결과에 대하여 박위근 목사는 세례교인들을 중심으로 한 설문의 결과가 이 정도라면, 전교인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 기도생활의 비율은 훨씬 낮아질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의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건전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식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지적한다.

(3) 현재 한국장로교회의 찬양의 양태

정장복 교수는 예배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면서, 예배의 본질 중의 한 요소로서 찬송을 언급하고 있다.

“개신교에서 예배의 본질을 이해하는 일은 실로 중요한 과정이다.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찬송을 부르고, 아우성을 치는 기도를 드리는 무질서한 예배는 영적인 하나님의 현존을 위한 제단이라기 보다는 인간의 인위적 경험에 의한 감정의 정화(catharsis)를 갖는 순간일 뿐이다.”⁵³⁾

이와 같이 예배의 한 요소로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찬양은 그 첫째

52) 박위근, 위의 논문. pp. 95-96.

53) 정장복, 예배학개론, (서울:종로서적, 1985), p. 119.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굳이 또 하나의 목적을 들자면,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 부수적으로 영적 기쁨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찬양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들의 기쁨, 자기 만족, 자기 충족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약화되고, 사람들이 즐기기 위한 다양한 세속적인 곡들이 교회 음악에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찬양에 있어서 세대간의 차이도 심각한 상태이다. 장년층은 옛날부터 불려오는 찬송가 곡에 익숙해 있으나, 자라나는 청소년층은 장년층에서 옛날부터 불려오고 있는 찬송을 거의 부르지 않는 실정이다. 중,소교회마다 찬양 예배시 장년층을 위한 찬양과 청소년 층을 위한 찬양의 구성 비율 때문에 사소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장년층은 청소년층에서 좋아하는 곡을 수용하기 힘들고, 반대로 청소년층에서는 장년층이 선호하는 곡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장년층의 입장에서 보면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찬양들은 너무 빠르고 알아 들을 수도 없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함께 부를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고, 청소년들이 장년층의 찬양에 동참하고자 하면 그 곡이 너무 느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함께 부르기를 싫어하는 것이다. 현재로써는 한국교회의 찬양에 있어서 양쪽 세대를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찬양이 없는 실정이나 마찬가지이다.

김은성은 또한 찬양의 선곡의 문제를 지적한다. 그는 찬양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려져야 한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역자들의 찬양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예배시 찬양의 선곡에 문제가 많이 있고, 예배를 위한 찬양인지, 전도집회를 위한 찬양인지를 구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⁵⁴⁾

54) 김은성, “한국교회 예배찬송에 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대학원 석사논문, 1988. pp. 53, 54.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노래만 불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 속에 또 하나의 값진 것이 깃들려져야 한다. 노래는 그냥 읽어드는 것이 아니고 그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역자는 부르는 찬송의 내용과 뜻을 예배와 음악을 통해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G.L.Knight는 교역자의 음악 이해에 대하여 말했는데 그 내용은 찬양이나 음악에 있어서 예배의 전체적 조화면에 끄적할 정도로 무식하다고 했다. 이런 말은 찬양의 부분을 너무도 등한시 여기기 때문에 찾아오는 문제이다. 오늘날 찬송 선곡도 매우 심각하여 예배의 목적에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리로 드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집회로 변질되어 버리고 있다. 한국 찬송가 내에서는 어떤 찬송이 예배용인지, 전도집회용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김성국은 한국교회의 찬송이 서양으로부터 전해진 채로 문화적 정착이 전혀 없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서 마음을 담아 진정한 찬양을 드리기 다소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곡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⁵⁵⁾

“선교 100년을 넘어선 한국교회는 문화적인 토착화의 길을 피해 오며 지내왔다. 찬송가도 서양의 찬송가를 그대로 옮긴 경우가 대부분이다. 선율이나 리듬에 관한 음악적 처리가 되어지는 일 없이 그대로 옮겨심는 일은 학문적 또는 자료적인 의미는 있어도 그것을

55) 김성국, “예배음악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한 제언”, 장로회신학대학대학원 석사논문, 1988, p. 50.

자기의 표현으로 삼기에는 문제가 있다.

음악은 살아있는 것이다. 그것은 변화를 의미한다. 노래가 기본적으로 말씀에 바탕을 둔 음악인 한 언어의 변천과 더불어 음악적인 변화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교회에는 대체로 옛 노래에 속하는 것이 많다. 이것은 역사를 초월한 신앙의 전달을 취지로 한 교회의 성격으로 미루어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교회가 이웃에 대한 선교적 역할을 그 취지로 삼고 있는 한 사방으로 퍼져가는 전도와 함께 새로운 스타일의 노래가 있다해서 이상스러운 것은 없다. 우리는 옛 노래를 현대에 수용할 수 있는 현대 감각의 접점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4) 현재 한국 장로교회의 믿음의 양태

한국 장로교회는 특이한 믿음의 양태를 가지고 있다. 한국 장로교회는 그동안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조한 ‘이신칭의’의 교리에만 너무 매달려온 나머지,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행위를 동반한 믿음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와 같은 성경은 던져 버릴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와 같이 ‘이신칭의’의 교리에만 매달림으로 인해 행위없는 신앙생활이 만연됨으로써 교회적이고,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교인들의 내면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확신있게 자리잡고 있는 것도 아니다. 교회 내에서는 오히려 율법주의가 만연하고, 예배나 기도, 또는 헌금 등에 대하여 복을 기대하는 풍조가 팽배해 있는 것을 볼 때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김중은 교수는, 위에서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한국의 선교 초기에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리고 그와 직결되는 사도행전 이후 초대교회에서의 복음전파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신약 본문들이 복음선포 즉 설교 현장에서 더 시급히 요청되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선교적 필요성 때문에 복음을 강조하고, 믿음만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을 강조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초신자들에게 잘 교육되어지고 전해져야 했던 이 교리가 이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과 사랑을 동시에 외쳐야 했던 모든 신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강조됨으로써 오늘날에는 ‘행위없는 믿음’만으로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만들어 내게 되었으며, 한국 땅에서 교회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이신칭의’의 교리에만 매달려 이웃에 대한 실천없는 믿음의 양태를 보이고 있는 한국교회가 다른 한편으로는 잘못된 성경이해와 설교사역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상을 기대하는 율법주의적 믿음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나채운 교수는 이러한 믿음의 경향은 한국 땅의 설교자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오직 은혜로’라는 복음을 전하기 보다는 구약적이고 조건적인 복을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⁵⁶⁾

“한국교회의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강조하기 보다는 조건적인 복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적인 복은 또한 공적사상과도 직결되어, 대다수의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은 신약적인 것이기 보다는 구약적인 것이요, 개신교적이기 보다는 구교(가톨릭

56) 나채운, “성경에 비쳐본 한국교회 설교의 문제점”, 성경과 설교, (서울:한국성서학연구소, 1995), pp. 26-27.

력)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 사상, 예수를 믿는 목적은 구원 받기 위함이라는 것이 모든 교인들의 생각이다. 그리고 복의 개념도 동양적인 것으로서 지상적이고 육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복받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큰 복(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요,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구원을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으므로, 그 결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결국 한국 땅에서 ‘이신칭의’는 이웃에 대하여는 행위없음으로, 하나님에 대하여는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하여 복을 바라는 기형적이고, 변질된 믿음의 형태로 바뀌게 된 것이다.

한국교회의 믿음에 대하여 위와 같은 학자들의 분석과 의견과 더불어 평신도들의 믿음에 대한 인식을 살펴 보는 것이 현재 한국교회의 믿음의 양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염천교회 교인들에 대한 설문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⁵⁷⁾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의 92.8%가 하나님의 창조주되심과 만물이 그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을 믿는다고 응답했다. 또한 94.8%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84.9%가 구원을 받았음을 고백하며 그것을 감사하고 감격한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85.9%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성경의 진리에 대하여, 그것을 스스로 시인하며 죄사함 받는 일 이상으로 크고 존귀한 일이 없다는 것을 믿는다고 응답했다. 박위근 목사는 이런 결과는 자신이 구원의 문제에 대한 설교를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현상을 볼 때, 한국교회 교인들의 믿음은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

57) 박위근, 위의 논문. pp. 88-92, 99-100.

하여서는 확고한 편이지만, 갈뱅이 말하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을 통한 믿음에는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5) 현재 한국 장로교회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태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왜곡된 믿음으로 인하여 대단히 잘못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인들의 믿음의 내용과 질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왜곡을 자연스럽게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교회는 교회의 자체의 성장과 발전에만 몰두하여 모든 힘을 거기에 쏟아온 결과 이제는 사회로부터 소외당하는 정체성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김명용 교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교회의 디아코니아적 사명 감당의 부재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이 하고 있으며, 그 위기의 중심에는 교회론의 위기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필자는 그러한 교회론의 위기의 근본 원인은 지나치게 편향되어온 '이신칭의'에 대한 강조 때문이었다고 본다. '이신칭의'만을 강조한 결과 교인들은 자연히 자신들의 구원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나태해져서 그리스도인으로써 감당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김명용 교수는 이러한 현상에 부닥친 한국교회의 현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⁵⁸⁾

"오늘의 한국교회의 위기 중심에는 교회론의 위기가 존재하고 있다. 왜냐하면 오늘의 한국교회는 교회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 지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고, 한국 사회나 한국 국민의 기

58) 김명용, 열린신학 바른교회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97), pp. 31-32.

대와는 동떨어진 엉뚱한 일에 골몰함으로써 사회와 국민으로부터 점점 버림을 받고 있다. 오늘의 한국 사회와 한국 국민은 교회가 디아코니아적 사명을 잘 감당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교회가 디아코니아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 부분 낮설어 하고 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 기관이지 장애인을 돕는 사회사업 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잘못된 생각은 진보적인 교회보다는 한국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수적인 복음주의적 교회 속에 자주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생각의 속에는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별하는 이원론적 사고가 그 배경에 깔려 있다. 장애인이나 가난한 이웃이나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것 자체를 의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 내에 아무도 없다. 그러나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육체적 양식을 주는 것과 영적으로 굶주린 자에게 영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단히 많다. 이런 사고 때문에, 복음주의적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도의 우위성에 대한 강조가 나타나고, 이 우위성의 뒷면에는 이웃에 대한 세상적 책임성의 후퇴가 나타나게 된다.”

교회가 이런 사고와 분위기로 바르게 되는 것은 결국은 행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기 때문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바울사도가 유대적 율법주의와 싸우고, 루터가 로마 가톨릭의 행위를 동반한 구원을 주장하는 무리들과 싸우기 위해서 내세웠던 귀중한 ‘이신칭의’의 교리가 한국에서는 오히려 잘못 전해지고 이해되어 이제는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게 하는 동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장로교회 내에서 자유주의 진영에 속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수

직적인 관계보다는 이웃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고, 보수 복음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이웃에 대한 책임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정원범 교수는 위와 같은 한국 교회 모습을 지적하면서 자신이 제시하는 몇가지 질문에 비추어 한국교회가 현재의 모습을 반성할 것을 주장한다.⁵⁹⁾

“한국교회는 그동안 심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던 적이 있으며 또 그런 현상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세계 교회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일부의 보수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고 복음전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는가 하면 반면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정치적 책임에 치중하여 복음전도를 단념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전자가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복음의 사회적 관련성에 위기를 초래했다면, 후자는 복음전도의 책임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복음의 정체성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위 보수진영 및 복음주의진영의 교회를 본다면, 아무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거나 등한히 했다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음의 질문에 대한 교회 안팎의 사람들의 답변을 긍정적으로 얻어낼 수 없겠기 때문이다.

1.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이웃사랑의 정신을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구현해 가고자 했는가?
2. 그들은 얼마나 공동체(인류공동체, 국가공동체, 사회공동체)의

59) 정원범, “갈뎡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신학과 문화 3집』, 1994. pp. 136-137.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 왔는가?

3. 그들은 스스로 얼마나 정의로운 삶을 살아 왔으며, 또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어 보려고 노력해 왔는가?

4.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감사하며 즐기며 얼마나 그것들을 절제하면서 가난하고 궁핍한 형제들을 위해 나누는 삶을 살아 왔는가?”

이러한 현실이 교회의 평신도들에게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음의 설문 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에 대하여서는 74.6%가 실천하기 어렵지만 주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음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25.4%는 이것이 가장 고귀한 미덕이므로 가능한 한 실천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와 같이 형제 사랑과 용서에 대하여서는 상당히 높은 긍정성을 나타내는 응답이 나왔다. 그러나 이런 결과에 대하여 박위근 목사는 다소 부정적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것은 매우 높은 도덕율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가 없다고 응답한 교인은 한 사람도 없었다. 형제 사랑에 대한 신앙적인 태도도 역시 전반적으로 보아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현실이 과연 그러한가 하는 문제는 이와는 전혀 그 현상을 달리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형제사랑,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는 일은 교회 안에서 정말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본 향의 응답은 염천교회 교인들의 마음의 소원일 뿐, 오늘의 생활에 대한 진실한 응답은 아닐 것이다. 문제는 이 마음의 소원을 현실로 옮겨 놓는 일인 것이다.”

4. 갈뱅의 영성과 한국 장로교회 영성의 비교

한국 장로교회는 그 신학의 모든 것을 갈뱅에게서 얻고 있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한국 장로교회의 영성을 갈뱅의 영성과 비교해 봄으로써 한국 장로교회가 지향해야 할 많은 시사점들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수영 교수는 갈뱅의 신학이 한국 장로교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지를 다음과 같이 논한다.⁶⁰⁾

“마르틴 루터에 의해 새롭게 발견되고 제창된 성경적 복음이해는 장 갈뱅에게서 그 가장 원숙하고 체계적인 표현을 얻게 되었으며, 그래서 갈뱅을 16세기 종교개혁 사상의 완성자요 개신교 신학의 한 원조라고 평가하는 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의 신학과 사상은 적어도 개신교 진영에서는 그의 직접적인 정신적 후예이든 아니든간에 누구에게나 모든 신학적 반성과 논의에 있어서 언제나 주된 고전과 준거로서의 위치를 차지해 왔다. 특히 오늘날 한국교회와 그 신학의 현황을 진단하고자 할 때 한국교회의 압도적 다수를 이루고 있는 장로교회의 신학적 시조인 갈뱅의 사고를 살펴보는 것은 분명 필요하고도 유익한 일이 될 것이다.”

(1) 갈뱅의 성서관과 한국 장로교회의 성서관 비교

갈뱅은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표현으로 사용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입을 통해서 주어진 인간의 책이라

60) 이수영, “갈뱅신학의 특징과 한국신학”, 같은책, p. 137.

는 사실도 말하고 있다. 즉 그는 신언으로서의 성서와 인간의 말로 씌어진 서책으로서의 성서와의 역설적 조화를 강조한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성서 비평학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예수의 신성을 강조한 나머지 그의 인성을 무시하는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어떤 사람은 성서의 신적인 면만을 강조하고 인적인 면을 도외시하여 성서무오설과 축자영감설의 포로가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한국교회에서도 이제는 그와 같은 이론들의 영향력이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지만, 교회 현장에서는 아직도 예전에 받아들인 근본주의의 영향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다.

갈뱅은 성서 권위를 하나님 자신에게 두고 있다. 또 하나는 성서의 진리가 인간의 추측이나 판단,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신비한 증거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여 하나님의 영감에서 권위의 소재를 찾는다. 성서의 기자들은 성서 안에서 결코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도구로서”만 말하였을 뿐이라는 한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하여 씌어진 것이라는 말이다. 갈뱅은 성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저자의 인간적 불완전에도 불구하고 무오하다고 말하는 동시에 인간의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피할 수 없이 생기는 문자적 오류도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문자적 오류 때문에 성서의 권위가 손상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교회에서 문제가 되어온 축자 영감설은 갈뱅 자신이 말한 교리가 아니라 그의 후예들이 만들어 낸 것이다.

갈뱅은 성서에 대한 성령의 내적 증거를 강조한다. 그는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인간의 이성이나 교회의 권위에 의해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하여 확인된다고 말한다.

갈뱅은 그리스도 중심적 원리에서 신구약 성서의 통일성을 찾고 기능적인 면에서 그 차이점을 말한다. 구약은 영적축복을 현세적 축복으로 표현했고,

구약은 문자적인 반면, 신약은 영적이라고 그는 말한다. 구약은 한민족에게 주어진 것이고, 신약은 모든 민족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결국 구약의 언약은 신약의 언약과 동일한 것이며, 구약의 형상과 의식은 그리스도를 예표했다고 말한다. 이에 비해 한국교회는 지나치게 복음을 강조하면서 신약에 치우치고 있으나, 실제로 교인들의 신앙은 율법주의적인 구약적 경향을 띠고 있다.

갈뱅은 성서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이루어진 계시의 책이므로 '성서의 진정한 해석자는 성령이다'라고 말한다. 즉 성령의 도움없이 성서의 진정한 의미를 밝힐 수 없다는 것이다. 동시에 그는 성서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인간들의 저술에 의한 책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따라서 갈뱅은 성서 해석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동시에 성서 속에 나타나는 필사자의 오류와 문자적 불일치를 인정하면서 성서 해석을 시도한다. 또한 그는 성서를 주석하는 동기와 목적이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교화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 즉 신도들로 하여금 성서의 본문자체의 뜻을 알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성서를 주석한다는 것이다. 그는 성서 해석의 핵심을 성서의 본문자체의 '순수한 의미'를 발견하는데 둔다. 이 순수한 의미란 주요 의미, 실제적인 의미, 단순한 의미, 또는 문법적인 의미이다. 갈빈은 순수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히브리어, 헬라어, 지리학, 역사학, 의학 그리고 철학 등 그가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연구와 지식은 성서의 본문을 해석하는 데에 봉사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성서의 사고와 원저자의 의도를 탐색하려면 성서의 배경을 연구하고 역사적, 지리적, 제도적 그리고 생활조건적인 사정과 저자의 시대와 환경을 연구하여 그 배경과 삶의 자리에서 성서의 본래의 뜻을 찾아야 할 것을 강조한다. 또 어느 구절을 해석할 때에 그 본문의 문맥을 연구하여 그 문맥에 따라서 본문을 해석해야만 탈선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갈뱅은 말하기를 주석가가 먼저 주의할 것은 성서로 하여금 성서가 의도하는 것을 말하게 하

고, 인간이 생각하는 것을 성서로 하여금 말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갈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설교자들이 자신의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성서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그 결과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의 삶을 성경에 일치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말씀을 읽기에도 열성을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는 현실은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갈뱅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세로 해석하고 전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갈뱅은 성서에 대한 비평을 외면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 16세기에 그토록 복잡한 해석학의 방법론들을 정복하고 그 다음 과정에서 교회의 유익과 당시대의 교권들을 시정하여 종교개혁에 이르는 신학의 현장에서 극히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석하고 있다. 갈뱅은 그 당시에 복잡한 성서 해석들과 모든 학설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학설들을 암기하여 자유자재로 인용한다. 그래서 그는 멜랑히톤, 부처, 쾰링클리 등의 다양한 해석 방법 등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확인하여 당대의 해석적인 방법론들을 정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완벽한 자신의 주도적인 방법론 하에서 성서를 해석하고 있다. 그는 과거의 전통적인 방법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독창적인 성서 해석 방법론을 발굴,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그가 자신의 방법론을 지키면서도 여전히 교회의 유익을 옹호하고 위선적인 가톨릭 교도와 교권을 대결하는 성서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철저히 성령의 감화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도 성령의 감화하심을 인정하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성서 비평학을 과감히 도구로 활용하여 성서의 본래의 의미를 찾아 현대인에게 그 뜻을 제대로 적용시키는 작업을 시

도해야 할 것이다.

이상섭은 갈뱅의 성서관에 비추어 한국교회가 바른 성서관을 갖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원칙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⁶¹⁾

“첫째, 성서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말해주는 것이지, 성서 가운데 나타난 어떤 방언이나 사탄의 말 한자 한자가 그것을 말해 주는 것은 아니다.

둘째, 성서의 권위는 어떤 교리나 신학 체계보다 위에 있다. 즉 신조나 조직신학마저도 성서의 비판 아래 있다는 것이다.

셋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필요하다. 그것은 넓은 의미로 성서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며, 동시에 옛날에 어떤 지정된 예언자에게 지정된 시간과 장소의 상황 안에서 선포하라고 감동하신 그때의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지 그것이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오해를 받기 쉬운 말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 사는 생활가운데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면 성서에서 옛날 사람들에게 하신 그 글자 그대로 들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서의 말 배후에 숨겨있는 그 말씀의 깊은 곳에 파고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과 저자의 의도 등을 비평적으로 연구하며 문맥 안에서 본문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이제 우리는 성서 비평학을 과감하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성서 비평학이란 성서의 권위와 그 메시지의 강조성과 하나님의 계시의 다양성 및 하나님의 진리가 어느 한 교리에 사로잡혀 있지 않

61) 이상섭, “갈뱅의 성서관과 한국 장로교회의 성서관의 비교”,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1, pp. 108-109.

다는 말씀의 자유성과 주체성을 적극적으로 이해 할 수 있다는 성서 연구의 한 이로운 방법인 것이다. 그러므로 성서 비평학을 선입견적 두려움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비평학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는 성서 비평학의 방법으로 성서의 글자 배후에 있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오늘의 시대에서 들을 수 있다. 이 성서 비평학은 소극적이거나, 파괴적인 것도 아니다.

다섯째, 우리는 성서의 가장 정확한 해석자는 성령 자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갈방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하여 확증되기 전에는, 사람의 마음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 (I.vii.4)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성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면을 포착해야 한다. 그렇다면 성서 이해에 있어서 너무 무모하게 문자에 맹종(盲從) 하지 말고, 그 문자에 활력을 제공해 준 성령에 의존해야 한다."

(2) 갈방의 기도관과 한국 장로교회 기도의 양태 비교

갈방은 기도를 믿음의 최상의 표현이며, 신자는 이것을 통하여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한다. 즉 진정한 신자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받는다는 것이다. 한국교회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받겠다는 의지는 아주 강하다. 다만 그것이 맹목적인 면으로 많이 흐르고, 기도를 통하여 마치 마술적 반응을 얻는 것처럼 기대하는 현상이 있는 것이 문제이다. 그리고 새벽기도회 등의 기도회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교인들에게 헛된 공로주의 의식을 가지게 만드는 경향도 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기꺼이 받겠다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이 기도의 노력의 공로를 많이 쌓음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것이다.

갈뱅은 신자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신자들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즉 신자가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늘 가지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을 갖지 않기 위함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세로 받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그 분의 인자하심을 명상하면서, 더욱 기쁜 마음으로 그의 섭리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한국교회는 기도의 훈련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갈뱅이 말하는 요소들이 거의 언급되거나 가르쳐지지도 않고 있으며, 훈련으로서의 기도보다는 대중 앞에서의 공중기도에 더욱 관심을 쏟음으로 인해서 미사여구를 남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횡설수설하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위의 설문에서 보았듯이 한국교회의 평신도들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열심히 기도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람들은 응답자들의 반에도 이르지 않았다. 이것은 갈뱅이 기도를 믿음의 표현인 동시에 훈련이라고 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심각한 모순이라고 생각된다.

갈뱅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자세를 중요시하고 있다. 그는 신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대한 무력감을 가지고 겸손해야 하고, 자신의 가치를 생각하지 말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자세로 해야 하고, 그러나 동시에 비록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라 하더라도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확신과 소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보자로 모시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신자가 아무리 어렵고 괴로운 가운데 탄원의 기도를 드리더라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말한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주변에

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는 감사의 대상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깔뱅의 말을 잘 새겨 볼 때, 한국교회의 기도에는 감사의 기도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대부분의 기도가 일방적인 간구의 기도가 되었다. 이에 대한 지적으로 기복신앙이라는 말이 나오고, 새벽기도회를 지나치게 신비화하고, 마술적인 힘이 있는 것처럼 과장한다는 말이 나오기까지 이르렀다.

(3) 깔뱅이 말하는 찬양과 한국 장로교회 찬양의 양태 비교

깔뱅은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무한히 많다고 하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성을 다한 찬양을 드려야 한다고 말한다. 그의 동시대 사람인 쓰빙글리는 노래를 예배에서 제외시켰지만, 깔뱅은 음악이 가지는 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몇가지 주의 사항들을 제시하면서 예배시 찬양을 할 것을 허락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되, 그 노래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입술과 목에서만 나오는 것이라면 아무 가치가 없고,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찬양과 관련된 이와 같은 깔뱅의 말을 한국교회의 찬양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한국교회의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한국교회가 예배시에 사용하는 찬송가 자체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며, 새로운 다짐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지어진 찬양이 구별되어 있지 않고, 예배시 선곡에서도 이런 점이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깔뱅이 구분한 대로 본다면, 한국교회의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양인지, 예배를 드리는 회중들을 위한 찬양인지 구별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찬양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새로운 찬양들을 보면, 그것이 과

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양인지, 아니면 부르는 사람들이 즐기기 위한 찬양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물론 이러한 찬양을 권장하는 사람들은 선교를 위하여 구태의연하고 진부하여 젊은층으로부터 외면 당하는 곡에서 벗어나서 문화적인 흐름에 맞추어야 할 것을 주장한다. 선교를 위하여 새로운 곡을 만드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고, 계속되어야 할 일이지만, 그것이 즐기기 위한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양이라면, 한국교회는 갈뎡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갈뎡은 실제로 시편을 주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지닌 모든 능력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교회는 지금 한국교인들의 정서에 맞는 찬양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예전에 선교사들이 전해준 그 찬양들을 백년 가까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갈뎡이 말한 대로 한국교인들이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을 다 바쳐서 찬양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가진 능력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의 모든 것을 담아내어 찬양할 수 있는 찬송의 곡과 가사들을 만드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4) 갈뎡이 말하는 믿음과 한국 장로교회 믿음의 양태 비교

갈뎡은 믿음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한 믿음을 강조한다. 그는 막연하고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고, 확신에 근거한 믿음을 말한다. 즉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내적 확신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일에 있어서, 사람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견실한 믿음에는 이에 동반되는 인내가 있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인간이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며, 자기 자신의 이러한 나약한 본성을 알면서도 믿음의 확

신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은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하여 가능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수영 교수는 특별히 갈뱅이 말하는 믿음의 실천적인 요소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음을 우리는 이미 위에서 보았다. 참된 믿음의 지식은 목표를 가져야 하며, 유익해야 하고, 나와 관계된 것이어야 하고, 우리를 실천에로 인도하는 것이어야 하며, 경험 속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갈뱅의 믿음관에 비추어 본다면, 한국교회의 믿음에 대한 이해에는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교회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을 중심에 둔 믿음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중심에 둔 믿음의 경향이 있다. '이신칭의'를 통한 구원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마치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모든 목표가 구원받는 데에만 있는 것과 같은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하여 초신자도 구원의 문제에 매달려 있고, 10년이나 20년이상 교회생활을 한 사람들도 여전히 구원의 문제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갈뱅의 실천적 믿음에 비추어 본다면 한국교회의 믿음의 목표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실천으로 우리를 인도하며, 경험 속에서 확인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갈뱅의 믿음관이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확인될 수 있을 지도 막연하다.

또한 한국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율법주의적 공로주의 즉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봉사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는 믿음의 경향도 갈뱅이 제시하는 믿음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갈뱅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믿음이 생긴다고 말했는데, 한국교회의 신자들은 동양 종교적 요소와 샤머니즘적 분위기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공로를 마음 속으로 신뢰하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갈뱅은 진정한 믿음과 거짓된 믿음에 대하여 논하면서, 믿음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인애를 아는 지식과 그 인애의 신실성에 대한 확실한 신념인데, 버

림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신념이 마음 속에 깊이 뿌리를 박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로서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인같이 행동한다(III.ii.12)고 말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갈뱅의 이러한 주장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의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공로주의 의식을 가지는 것은 혹시 갈뱅이 말하는 '고용인'의 자세가 아닌지 진지하게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5) 갈뱅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한국 장로교회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교

존 리스(John H. Leith)는 갈뱅의 신학을 이어오는 개혁교회의 신앙전통에 있어서 개인구원은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칼바르트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하고 있다.⁶²⁾

“만일 우리가 신약의 명령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일시적인, 그리고 영원한 그의 섬김을 위하여, 그리고 결과적으로 영생을 위하여 임명하고 선택하셨노라고 우리가 말해야 할 것으로 내게는 생각된다. 섬김의 개념이 간과되지 말아야 한다. 신약을 보면 인간들은 단순히 구원받고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뚜렷한 특권을 누리기 위하여 교회에 나온다.”

신앙생활의 모든 목적을 자기자신만을 위한 개인의 구원에 둔다는 것은 갈뱅과 그의 뒤를 이어온 개혁교회의 신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위

62) 존 H. 리스, 황승룡, 이용원 공역, 개혁교회와 신학,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p. 67.

의 진술에서 잘 알 수 있다.

갈뱅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자기부정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자신들에게 소유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 소유된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며, 하나님의 주권하심 속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고 한다. 그는 이러한 자기부정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할지라도 결국은 자기가 칭찬을 듣기 위해서 즉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할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갈뱅은 자기부정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강조한다. 자기부정은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한다고 그는 말한다. 다른 사람을 존경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신자의 자기부정이라는 것이다.

갈뱅의 이러한 가르침에 한국교회의 모습을 비추어 본다면, 한국교회의 부족한 면이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지적했던 다른 부분에서도 갈뱅의 가르침과 한국교회의 실제 모습에서 차이점이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 부분은 다른 어느 부분보다 더 약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김명용 교수가 한국교회의 위기의 중심에는 교회가 지금 이 사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교회론의 위기가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고, 정원범 교수도 오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의 사회 속에서 개혁과 변화의 주인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 오늘의 개혁의 역사에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다고 하면서,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자체의 본성에 대한 이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여 온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⁶³⁾고 말한다.

63) 정원범, “갈뱅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신학과문화」 3집, 1994.

갈뻥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를 저야만 함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신다고 한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내세에 대한 명상이 중요함을 말한다. 그는 내세에 대한 명상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현세의 삶의 허무성을 이겨내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는 힘을 줄 수 있다고 한다. 그는 동시에 현실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보조수단들을 적절히 사용할 것을 신자들에게 권고한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면에서 또한 많은 점을 반성해야 한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가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들의 현세적인 삶의 수준도 향상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의 영향을 받아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내세에 관심을 기울이기 보다는 오히려 현세적 삶에 집착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교회가 세상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서 물질만능주의의 경향을 거부하지 못하고, 오히려 편승하여 따라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현세의 보조수단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려고 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편안함과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려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며, 갈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깊이 반성하고, 스스로의 모습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갈뱅이 말하는 성경, 기도, 찬양,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보고, 이에 비추어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이러한 다섯가지 요소만으로 갈뱅의 영성을 말하고, 한국교회의 영성을 말한다는 것이 영성의 의미를 지나치게 협소화시킬 위험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섯 가지가 어떠한 의미의 영성에서든지 기독교 영성에서라면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이룬다는 생각으로, 또한 한국교회의 실상을 찾아보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것을 본 논문의 내용으로 삼았음을 서론에서 밝힌 바 있다.

이제 연구를 마치면서 이 논문에서 주제로 삼은 다섯요소에 있어서 갈뱅이 말하는 것들이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바로 잡혀갈 수 있을 지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함으로써 본 논문을 마감하려 한다.

성서관에 있어서 한국교회는 갈뱅이 말하는 대로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르게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되, 지나치게 인위적인 근본주의 경향에 사로잡혀서 무리하게 성서무오설이나 축자영감설을 주장하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또한 신구약의 편중성을 극복하여야 한다. 구약도 신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도 동일하게 신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명심하여, 루터가 야고보서를 도외시했던 것과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 갈뱅이 '성서의 진정한 해석자는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들이 자신들의 논리 전개나 자신들을 변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그대로 전해지도록 해야 한

다. 또한 교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 신자들이 성경의 권위는 인정하면서도, 실제의 삶에서는 성경으로부터 별다른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위에서 보았다. 이러한 현상이 극복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기도함에 있어서, 갈뻥이 아무리 간절한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은 얼마든지 있다고 한 말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나채운 교수가 말한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또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명심한다면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지적받아온 기복신앙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신비화하거나 마술적인 힘이 있는 것으로 여기는 행위, 또는 새벽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공로를 쌓아간다는 착각 속에 빠지는 일은 따위는 없어지게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다섯가지 요소들 중에서 가장 많이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요소가 찬양이라고 생각된다. 한국교회는 찬양함에 있어서도 갈뻥의 목소리를 통하여 반성하고 수정할 것이 많이 있다. 찬양함에 있어서 갈뻥이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다. 현재 한국교회에는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갈뻥의 가르침과는 별로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찬양을 위한 찬송 자체가 부족하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양인지조차 구별이 안되어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임을 살펴보았다. 또한 갈뻥이 언급한 바는 없지만, 한국교회의 상황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면 선교를 위한 찬양을 만들어 선교에 힘을 쓰되, 아무리 선교를 위한 찬양이라 할지라도 이에 있어서도 갈뻥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잃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전통문화가 유교와 불

교의 영향에 깊이 접목되어 있어서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교인들이 우리의 정서를 담아내어 갈뱅이 말하는 대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나라는 진정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정서에 맞는 찬양을 개발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특별히 믿음에 있어서 갈뱅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제는 이신칭의에만 집착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신칭의와 더불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갈뱅이 말하는 실천적인 요소를 가진 믿음을 한국교회도 지향해야 한다. 즉 그리스도인 자신인 우리와 관련이 있고, 우리에게 유익하며, 목표가 있고, 우리를 실천으로 인도하고, 우리의 경험 속에서 확인될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강조되어온 '이신칭의'는 한국의 교인들로 하여금 실천이 전혀 없는 교인들이 되도록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갈뱅이 말하는 믿음의 의미를 되새겨 반성해 보는 것은 한국교회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한국교회가 갈뱅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즉 자기부정이 있고, 내세를 명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현세의 보조수단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삶을 추구한다면, 한국교회가 지금 당면한 문제들 중의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많은 학자들이 21세기의 한국교회는 디아코니아를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들의 새로운 주장이 아니고, 500년 전에 갈뱅이 이미 말했던 것을 그동안 묻어 두었다가 이제서야 찾아내는 것일 뿐이다. 한국교회는 갈뱅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대한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소화함으로써 현재 한국 사회의 혼란스러움 속에서 그동안 교회가 감당해야 할 부분들을 감당치 못해온 것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이제 한국교회는 위기와 도전 속에서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

동안 수많은 한국교회가 한국의 역사 속에서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적도 있었고, 또 그 사명을 망각하고 시대의 부침(浮沈)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거렸던 적도 많이 있었다. 과거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지금 한국교회가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때에 갈뱅의 목소리에 한국교회가 귀를 기울여 온고지신(溫故之新)의 교훈을 얻음으로써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 서적

김명용, 열린신학 바른교회론, (서울: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97)

김인수, 한국 기독교회의 역사,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7.

김중은, “구약도 자주 설교합시다”, 성경과 설교,

(서울:한국성서학연구소, 1995)

나채운, “성경에 비쳐본 한국교회 설교의 문제점”, 성경과 설교,

(서울:한국성서학연구소, 1995)

민경배, 교회와 민족, (서울, 1981)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기독교서회, 1972)

오성춘, 영성과 목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 출판부, 1995)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서울: 장로회신학대학 출판부, 1984)

정장복, 설교학 서설, (서울: 엠마오, 1995)

정장복, 예배학개론, (서울:종로서적, 1985)

한완상 편,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 (서울: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2. 번역서 및 국외서적

존 H. 리스, 황승룡, 이용원 공역, 개혁교회와 신학,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존 칼빈, 김종흡, 신복윤, 이종성, 한철하 공역. 기독교 강요,

(서울:생명의 말씀사, 1996), (I .vi.3.)

존 칼빈, 칼빈성서주석

(서울: 존.칼빈성경주석출판위원회 역편, 성서교재간행사, 1979)

Donald K. Mckim, "칼빈의 성경관", 도날드 K. 맥킴 외 공편,

한국칼빈주의연구원 편역, 칼빈에 관한 신학논문,

(서울: 기독교문화사, 1986)

Philip C. Holtrop, 박희석, 이길상 역, 기독교강요 연구핸드북,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5)

John H. Leith, An Introduction to the Reformed Tradition,

(John Knox Press, 1978)

John Calvin, Instruction in Faith(1537),

translated by Paul T. Fuhrmann, (The Westminster Press)

Wilhelm Niesel, The Theology of Calvin. translated by Harold Knight,

(William Clowes and Sons, Limited, London and Beccles. 1956)

3. 정기간행물

김경재, "주기도문의 영성과 씨알 사상" 37-38, 「신앙과신학」, 제5집,

(한국기독교학회편, 서울: 강남출판사, 1989)

김승태, "이수정이 남긴 개신교 최초의 신앙고백문과 신앙서",

「복음과 상황」 42호, 95년 5월.

서정운, "초기 한국 장로교회의 성장과 선교사들의 신앙정신",

「교회와 신학」 13집, 1981.

이수영, "한국교회의 영성이해", 「신학사상」 77집, 1992년,

이수영, "갈렙신학의 특징과 한국신학", 「개혁사상」,

(서울:한국기독교사상연구소, 1989), 창간호.

_____, “갈뱅신학의 몇가지 기본적 관점”, 「장신논단」 1집,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사, 1985)

_____, “갈뱅에 있어서 경건의 개념”, 「교회와신학」 27집,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95)

조인형, “한국찬송가의 역사와 과제”, 「기독교사상」,
(대한기독교서회, 1997, 9월호)

차성환, “한국 초기 개신교 선교사들의 종교성과 근대적 삶의 형성”,
신학사상, 73집, 1991.

4. 기타 논문

김경재, “신학교육에 있어서 영성교육의 방안-이론신학 분야에서”,
(한국신학교육연구원, 1990)

김성국, “예배음악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한 제언”,
장로회신학대학대학원 석사논문, 1988.

김은성, “한국교회 예배찬송에 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대학원 석사논문, 1988.

박위근, “교회갱신의 과제와 그 방안에 관한 연구”-염천교회를 중심으로-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풀러신학교(공동목회학박사학위논문, 1987)

이상섭, “갈뱅의 성서관과 한국 장로교회의 성서관의 비교”,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1.

정원범, “갈뱅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신학과 문화 3집」, 1994.